

第12・13輯 鄉土文化研究發表論集

鄉 土 史 料

— 東學農民革命 茂長蜂起
100周年紀念 學術誌 —

1993. 11. 19

高 敝 文 化 院
鄉 土 文 化 研 究 會

目 次

- 全琿準은 高敞 堂村 胎生
李 起 華：全羅北道文化財 專門委員
- 茂長은 甲午東學農民革命의 發祥地
陳 鎰 洪：郵政史家
- 感泉先生의 孝와 彰孝祠
愼 思 範：高敞 鄉土文化研究會 副會長
- 韜庵 吳希吉 小考
柳 孔 善：高敞 鄉土文化研究會 文化藝術分科委員長

第12・13輯 鄉土文化研究發表論集

鄉 土 史 料

— 東學農民革命 茂長蜂起
100周年紀念 學術誌 —

1993. 11. 19

高 徹 文 化 院
鄉 土 文 化 研 究 會

發 刊 辭

李 起 萃

〈高敞文化院長〉

郷土史는 우리 父祖의 努力의 자취를 體系있게 客觀적으로 記述整理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보나온 未來를 追求하는데 거울을 삼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생활에 대한 記錄을 너무 소홀히 하여 백성들의 참 모습을 잘 밝혀내지 못하였다.

東學農民革命의 경우만 하더라도 채 1세기도 안된 이 나라 최초의 民權運動이요 부패척결을 통한 정부개혁에 민중의 의지와 힘을 결집시켜 民族自主의 蠟炬를 밝힌 茂長農民蜂起와 그 영도자 全瑋準장군이 高敞出身이라는 사실등이 일제의 간악한 縮小指向政策에 의해 趙秉甲군수의 苛斂誅求에 견디다 못한 고통받는 古阜농민들의 단순한 불만으로 얼버무려 버린 歷史 歪曲을 그냥 두고 都鄙間에 모두들 말로만 번질나게 ‘東學農民革命 100周年 紀念事業’을 운위하고 있는 현실상황에 대해 실로 어처구니 없는 개탄임을 금치 못하면서 이대로 坐視만 할 수 없기에 그 동안의 은폐, 날조등으로 잘못 짚어진 歷史認識을 是正하는데 그 앞장을 서기로 하여 이 분야의 專門史家들의 鑒證하고 객관성 있는 史料의 논리적 전개로 우리 고장 茂長땅이 東學農民革命의 發祥地임을 입증, 빛나가 있는 東學史를 바로 잡아 역사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와같은 구상과 계획에 의해 올 봄에 발표하기로 한 12輯을 예산과 여

러가지 형편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13輯과 합본하여 발간하게 된 어려움을
苦衷之談으로 남겨 놓는다.

그리고 오늘 발표회를 위해 크게 配慮해 주신 朴永錫 國史編纂委員長님,
李玉童 韓國文化院 聯合會長님, 李離和 歷史問題研究所長님, 鄉土史家 陳鎰
洪님과 物心兩面으로 協贊을 아끼지 않은 庾炳天 全羅北道 教育委員님께 지
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린다.

目 次

- 全琿準은 高敞 堂村 胎生 1
李 起 華：全羅北道文化財 專門委員
- 茂長은 甲午東學農民革命의 發祥地 27
陳 鎰 洪：郵政史家
- 感泉先生의 孝와 彰孝祠 35
愼 思 範：高敞 鄉土文化研究會 副會長
- 韜庵 吳希吉 小考 39
柳 孔 善：高敞 鄉土文化研究會 文化藝術分科委員長

全瑋準은 高敞 堂村 胎生

李 起 華

高敞文化院長

1. 머 리 말

평소 每事에 性急한 習俗과 衣·食·住生計에 찌들고, 班·常타령에 급급하던 消極性때문에 記錄을 白眼視하던 우리 祖上들의 소홀함을 意識하기는 하나, 全瑋準에 관해서는 불과 1세기도 안되는 史蹟이 이렇게도 五里霧中裡에 까마득히 사라져버린 歷程이 또 있겠는가.

王朝 때에는 逆敵으로 몰려 쉬쉬했고, 日帝治下에서는 敵徒로 몰려 그 자취가 모두 湮滅하게 되어 不可抗力의인 事態이긴 하였으나 그에 대한 身上記錄한 줄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 옳을지 모를 일이다.

전봉준에 관한 史的 記錄까지 混線을 빚고 있어 寒心하기 이룰데 없게 되었다. 그의 生年에 관해 《國史大事典》(李弘植 編)에는 1853년생으로 되어 있고,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刊行)에는 1854년생, 그리고 供草錄에 근거한 다른 史冊에는 1855년 등으로 混記되고 있으며, 出生地도 泰仁說(《한국인명대사전》)과 古阜說(《國史사전》), 그리고 古阜郡 宮東面 烏巢里(《人物韓國史》)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되었다.

더구나 안타깝고 寒心스럽기는 그동안 능력 있는 史學者들이 건재하면서도 또한 東學을 承繼하고 있는 宗教團體가 嚴然하게 存立해 있으면서,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능히 당시의 現場을 目擊하고 記憶하고 있을 古老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어찌해서 外面해버렸던가 하는 점이다.

그 당시 東學의 가담자요, 전봉준과의 同伴者로서 1938년 4월에 《東學史》를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썼던 (刊行, 1940년) 吳知泳도, 愼鏞廈教授(서울大)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보다 14년 전인 1924년에 이미 《동학사》의 草稿本을 완성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1920년대에서 기록을 증언할 수 있는 古老들의 生存年代인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뜻 있는 學者들이 현지를 찾는 열성을 보였더라면 전봉준의 출생지나 생가 정도야 진즉 규명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뒤 따른다.

또한 오늘날까지 東學革命에 관한 單行本과 발표된 論文이 수10편에 이르는 것으로 思料되는데, 지금까지 公式化되어 있는 전봉준에 대한 몇 가지 釋然치 못한 事項을 추려보면,

첫째, 大院君과 전봉준과의 事前 密約 관계

둘째, 전봉준과 天佑됨과의 관계

셋째, 전봉준의 系譜 관계(특히 曾祖 이래의 居住地 관계)

다섯째, 기타 후손 관계

등으로 集約되고 있는데 전봉준의 출생지와 생활관계의 記術面에 있어서도 既說을 踏襲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事實에 대해서 우리 鄉土史家들은 매우 拒否反應의이거나 懷疑의인 萬感에 안기게 된다는 無嚴하지만 率直한 心境을 吐露하는 것이다.

筆者가 鄉土文化의 「동산지기」를 自處해온지 30년을 헤아리게 된 오늘까지, 만엔 전봉준에 관한 자료조사처럼 끈질기게 오랫동안 着手해본 事案은 아마 生涯를 통해 前無後無한 事例가 될 줄 믿는다.

1963년 文化院을 設立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봉준 장군은 高敞출신”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었고, 또한 지금 50대 이상의 고창 사람이면 누구나 귀가 닳도록 들어온 傳來之談이다. 그 말을 引用하여 '60년대 중반에 어느 地方記者가 新聞에 記事를 썼다가 전봉준이 자기 고창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井邑 사람들로 부터 호된 反駁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記事를 읽은 地方學者 어느 한 분도 關心의 表明은 고사하고 오히려 「영터리 기사」라는 맞장구까지 쳤다는 後聞을 들었을 때 筆者가 받은 衝擊은 너무도 컸었다. 그때 기어코 「전봉준의 胎生說」을 규명해야겠다는 作心을 두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0여년동안 이 事案의 究明을 위해 渾

身의 情을 다하였다.

처음에는 古老들의 證言과 高敞地方에 살고 있는 天安全氏들의 集姓村을 찾아 集姓狀況을 조사하였다. 그러던 중 集約되는 얘기 중에「高敞邑 竹林里 書堂村에 天安全氏가 世居해오던 중 東學亂때 官軍에 의해 거의 慘禍를 당하고 마을도 燒失되었는데 살아 남은 사람들은 風散을 해 變姓名으로 隱居할 것이라」는 內容에 心證이 왔다.

어딘가에 묻혀 살 것만 같은 전봉준의 一家들을 찾아 나선 것이 奏効가 되어 이제는 實證的인 面에서 그 규명에 따른 그 동안의 研究資料를 바탕으로 前봉준의 高敞胎生說을 究明하고자 한다.

II. 東學革命과 高敞

1. 東學의 淵源

동학은 1860년(哲宗 12)에 沒洛한 慶州兩班 崔濟愚가 創道한 것으로서 당시의 腐敗한 政治와 加重하는 民生苦를 보고 國家와 民生을 救濟할 그의 意氣와 鬱積한 農民意識의 暴發的 與件成熟의 投合 속에 동학이라는 道를 創立한 것이다.

東學이라는 教名은 그 무렵 強勢로 傳播되고 있는 天主教를 西學이라고 부른데 대해서 이 동학의 道는 한국고유의 民間信仰의 최고 대상인 上帝를 主體로 하고 東邦의 나라에서 새로이 創道된 것이라 하여 그러한 名稱이 생겨진 것이다. 이는 眞實로 우리나라에 있어 近代的인 民族國家意識에 先行한 民族的 宗教運動의 展開라 할 수 있다.

2. 東學農民革命의 背景

(1)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역사의 물결에는 항상 그 시대의 주인공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주인공이 武士였다면 고려의 주인공은 武人과 승려였고, 조선조 말기에 밀어닥친 근대화의 여명과 더불어 민중이 새 역사의 역량과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여기에서 싹튼 窮班과 천민의 저항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질서와 양반사회의

퇴폐에 대한 윤리적 항변으로 비약되어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형태로 나타났다.

시민사회가 귀족사회를 무너뜨린 「불란서 혁명」이 역사의 궤도를 달리하게 되었던 19세기말 영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세계적 조류와 정세가 일대 방향전환의 물결을 크게 일으킨다. 바로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도 사대와 봉건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속에 그 역사적 전통이 맨 처음 전라도에서 세워졌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권운동의 새 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농민봉기로 표출되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의 유발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만 요원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반봉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全州和約, 弊政改革案, 執綱所 부분과 반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제2차 농민봉기의 목적에 대한 서술이 도외시 되었기 때문에 반봉건 반침략을 표방하고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역사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꿔놓은 일대 역사사건이라는 점. 우리 민족 해방 운동사 또는 민중운동사의 시발점이 뚜렷하긴 하나 아직도 그 성격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어느 뜻있는 학자에 의해 우리 역사가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의 괴리에서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학이 우리나라 근대 100년사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학혁명은 半封建·反事大·反侵略主義의 旗幟아래 민족의 自主意識과 人權 및 自由의 尊嚴性을 일깨워주었고 아울러 自主獨立의 精神的 根幹을 이루어왔다.

이와 같은 天下의 大本을 民心에 둔 이 革命은 民權·民生의 바탕 위에 민족의 自助·自律·自強을 위한 民衆의 抗戰으로서, 당시 社會相이던 政治的 부패, 貧官汚吏의 行悖, 税金의 過重 등으로 農民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특히 外國勢力의 浸透로 國家의 위협이 가중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민들은 막연하게나마 外國의 침략을 물리치고 政府의 改革을 요구하는 風潮가 싹트게 되었으며, 동학은 이러한 情勢를 배경으로 급속도로 발전, 단순한 宗教를 넘어 농민들의 사상을 뒷받침하고 社會改革과 外國勢力의 排斥을 포함하는 政治的인 세력으로 三南地方에 급격히 전파되었다.

그 동안 東學革命은 「縮小志向政策」에 따른 日帝의 奸計와 이에 동조한 親日 史學者들에 의해, 그리고 또한 이러한 脈絡위에서 無謀하게 歪曲, 捏造된 사례 등에 의해,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무책임하게 引用하여온 일부 學說들에 의해 불과 1세기도 안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베일에 가려져 역사의 뒤안길을 지금까지 맴돌아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땅히 世界思潮의 물결 속에 새 역사의 장으로 열려졌어야 할 東學革命의 빛깔은 그 당시 貧官汚吏의 象徵으로 부각된 古阜郡守 趙秉甲에 대한 단순한 農民들의 불평불만의 蜂起로 얼버무려 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蜂起한 農民들을 外勢에 대응하여 抵抗意識이 透徹하였던 「동학꾼」들의 단순한 弄奸으로 몰아 부쳤던 것으로 思料된다.

특히, 당시의 全羅道는 穀倉地帶로 官吏의 討索質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서 大規模의 民亂이 27회나 발생하였던 곳이며 특히 古阜의 民亂은 東學革命의 직접적인 動機를 이루었다. 古阜郡守 趙秉甲의 惑世誣民한 苛斂誅求에 분격한 농민들이 폭발적으로 蜂起하였던 것이다.

한편 茂長지역에서 농민군 봉기가 이루어졌던 전통적 배경을 살펴보면 高敞지방은 산이 있고 강이 있어 비옥한 평야가 조성된데다 금상첨화로 七山漁場이 있는 서해바다를 끼고 있어 天惠條件이 좋은 고장으로서 高麗시대에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베풀던 賜牌地의 名地가 되어 이른바 名門家의 후예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고려가 망한 후 不事二君의 忠節意識이 투철했던 高麗遺民들이 모여 사는 고장으로 알려지게 됨에 자연스럽게 선택받은 백성들의 은신처가 되었다.

朝鮮朝에서는 仕路를 등진채 田園生活을 즐기는 뜻있는 선비들의 搖籃(요람)으로 國亂에 이르면 忠義를 앞세워 목숨을 바치는 義節을 지켜 義鄉을 定立하였고 농한기에는 學問을 닦으면서 藝와 樂을 즐기게 되어 판소리의 聖地가 되었고 小作人들을 즐겁게 고무격려하는 마당놀이가 성행하여 풍물굿의 元祖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民衆意識이 싹트게 되었다.

또한 격조높은 선비고을인지라 그 밑의 庶民층들도 상전들의 든든한 배경과 전통적인 우월의식이 더불어 팽배하게 배이게 되어 이른바 깡치있는 민중의식이 여물어서 茂長은 일찍부터 衙前자랑의 고을을 알려지게 되어 부임

하는 수령들이 골치를 앓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中人·賤人들까지도 뼈대를 추리는 입장인데다 不義와의 타협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선비기품의 영향을 받아 野黨的 기질이 지금까지도 두드러진 곳이어서 18세기의 극도의 정치적 부패상황에 坐視默過하지 않고 첨진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민중의 싸이 터오르게 되었었다.

여기에다 꿈틀거리는 민중의식에 불을 붙이고 구슬을 꿰어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므로써 우순풍조를 맞게 되었다.

茂長고을에는 天安全氏 文孝公信의 손자 德隣[고려 우왕 10년(1384) 天安에서 출생]이 고려유민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茂長 長沙山 남쪽 井洞에 낙향하여 20代를 世居하면서 孔音面 新垆, 九井등에 100여세대가 살았는데 高敞 堂村에서 13살때까지 살다 떠난 全瑋準이 가난하지만 뜻이 깊은 선비로 성장하여 그 뜻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茂長사람들의 기질을 찾아 들게 된 것이다.

孫化仲 接主와 연계가 되면서 전봉준이 찾은 곳은 비밀이 보장되고 숙식이 해결되는 1등 보호 은닉처인 九井洞 文孝(栢軒) 公派 一家들이 사는 마을이었다.

여기에서 전봉준은 東學教徒와 젊은 一家 그리고 高敞 堂村에 살때 그의 아버지(全彰麟)가 訓長으로 있었던 書堂村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할 수 있었던 義氣넘친 靑壯年들의 규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민중의식이 강한 이들을 모은 全瑋準은 그의 활동 본거지인 九井마을 뒷산(九笛山)넘어 골짜기에서 은밀하게 農民革命軍을 양성할 수 있었던 여건 조성의 배경이 있었음을 향토사료와 古老들의 증언을 토대로 엮어본다.

(2) 東學思想 胎動의 歷史的 背景

(註) 本項의 歷史的 背景은 紙面關係上 李炫熙 教授의 集約된 主張을 引用하는 것으로 代身한다.

가. 18세기 이후 變質된 朝鮮王朝 兩班社會의 諸般 政治的 矛盾

나. 國家에의 納稅制度의 三政의 紊亂

다. 19세기 이후 西勢東漸의 危機속에서 國家保衛意識의 澎湃

라. 傳統的인 儒敎의 諸弊에 따른 指導理念의 褪色

마. 西學의 挑戰을 民族的 主體意識으로 對應하려는 姿勢

바. 實學에서의 現實批判 및 改革思想에 影響받은 被支配民衆의 意識水準의 向上과 높아진 그들의 自覺度등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3. 東學農民革命의 序幕

(1) 金溝聚黨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의 영향을 받아 철종 13년(1862) 금구현에서도 惡政의 시정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일으킨 금구민란이 있었다. 그 이후 1892년 가뜩이나 어지러워진 세태속에서 수령들의 부정과 벼슬아치들의 횡포가 농민들을 무수히 괴롭히게되자 호서와 호남의 인심이 요동을 쳐 이해 5월 전주 南橋里의 민중들은 관권에 대항하다가 수십명이 죽고 민가 수백채가 소각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즈음에 동학교단에서는 서인주·서병학 등이 敎祖伸冤운동을 전개, 마침내 5월 27일 최시형이 교도들에게 통유문을 보내 전라도 參禮驛에서 수만명이 모여 전라·충청 양감사에게 동학교도 탄압을 중지해 달라는 요구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 泐閣上疎를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어 동학교도들은 報恩에 모여 정식으로 복합상소를 결의하고 1893년 2월에 광화문에서 상소를 올렸다.

1893년 3월 최시형 등 교단 지도자들의 결의에 따라 교조신원을 위해 보은 場內리에 수만명이 모여들었고 때를 같이하여 금구 원평에서도 교도 수만명이 모여 보은 대집회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兩湖宣撫御使 魚允中을 보내 무마와 타협으로 동학교도들을 해산시켰고, 그 결과 금구의 취당도 자진해산 하게 되었다. 금구·원평 취당의 주동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점이 제기되었는데 「허서의 서병학과 호남의 金鳳集, 서장옥을 수색해서 감영의 감옥에 잡아다가 엄하게 문초하여 조정에 알리도록 하라」라는 기록의 대목으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吳知泳은 위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김봉집을 전봉준으로 바꾸어 쓰고 있고 김윤식도 「면양행견일기」에서 전봉집으로 바꾸어 쓰고 있어 김봉집

이 전봉준임을 입증해 주고 전봉준이 가명을 쓰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런 활약의 과정에서 전봉준에 대한, 동학당 수령 日淸交戰錄을 보면 일본인과의 필담에서도 김봉균으로 가명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즉 금구취당 세력은 북접 남접과는 일단별도의 입지에서 독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보은취회에 참여한 남접과는 연합을 이루어 斥倭洋과 지방관의 탐학금지의 요구를 보다 정치적인 운동형태로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구취당을 전봉준의 독자노선으로 파악하고 또 북접과도 어떤 연계를 통해 일을 추진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로써 금구취당은 전봉준의 농민봉기의 서막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2) 沙鉢通文

1892년(고종 29) 5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趙秉甲의 가렴주구와 가혹한 민재수탈의 학정이 극에 달해, 끝내는 전봉준의 아버지를 장독으로 죽게 까지 하였다.

萬石보 재촉에 강제동원, 水稅의 강제징수, 황지과세, 불표 불목죄명, 대동 이, 건비 등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진정서를 내고 보세감면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난민으로 몰아 징벌했다.

이에 호소무처가 된 농민들은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의 대표가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현 고부면 신중리 주산)에 있는 宋斗浩의 집에 모여 조병갑 군수를 응징하고 전주 감영을 함락시켜 서울로 가자는 당당한 혁명적 모의를 한 사발통문을 고부군내 각 마을 執綱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癸巳 十一月 日

各里 里執綱 座下

右와 如히 檄文을 四方에 飛傳하니 物論이 鼎沸하였다. 每日 亂亡을 謳歌하던 民衆들은 處處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네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나서야 百姓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하며 期日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이 때에 道人들은 善後策을 討議決定하기 爲하여 古阜郡 西部面 竹山里 宋斗浩家에 都所를 定하고 每日 雲集하여 次序를 決定하니 그 決意된 內容은 左와 如하다.

- 一. 古阜城을 擊破하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할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에게 阿諛하여 人民을 侵漁한 貧吏를 擊懲할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하고 京師로 直行할 事.

右와 如히 決議가 되고 따라서 軍略에 能하고 庶事에 敏活한 領導者될 將... (以下 判讀不能) (그리고 사발통문 서명자 명단을 생략함.)

이와같은 죽산리 사발통문이 결의된 후 11월 30일자로 조정에서는 조병 갑군수를 익산으로 전임시키고 李銀鎔을 고부군수를 발령하였다. 그러나 이은용은 부임도 하지 않았으며 崔在默 李奎白 卞肯一 康寅喆등도 계속 이 유를 들어 부임하지 않았다. 이런 이면에는 당시 이조판서 심상훈과 사돈 간인 조병갑이 고부고을에 유임하려는 계략과 공작이 주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고부동학교도 중심의 사발통문의 위력과 흥흥한 인심에 놀려 부임자 스스로가 기피운동을 전개, 보신책을 강구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면 5년간 무세 경작을 허가해주고 가을에는 세금을 받아갔다.

—부유한 농민들에게는 불효, 불목, 음행, 잡기의 애매한 죄목을 지어 2除兩의 전재를 누탈하고

—태인현감을 지낸 자기 아버지 趙奎淳의 비각을 세운다고 천여량을 거두고

—대동미를 민간에서는 정백미로 징수하고 조정에 보낼 때는 하등미로 대체하고 그차액을 착복.

—보를 쌓는데 산주 승낙도 없이 별목해 쓰고 그 임금도 모두 떼어먹는 등 갖은 수탈행위가 많았다.

(3) 古阜民亂

고부 농민봉기의 기폭제는 조병갑군수의 탐학수탈이 그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고부지역은 국내 제일의 곡창지대로서 전통적으로 지배층의 봉건적 수탈행위가 극심한 곳이었다. 더욱이 개항 이후에는 대일 쌀수출과 관련하여 지주제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몰락이 가속화된 지역이었다.

원성으로 밀려났던 조병갑은 그 배경이 든든한 지라 임지에 부임도 않고 오히려 전라감사 金文鉉을 통해 「고부 전군수 조병갑은 많은 포함을 청산하고자 때마침 세를 받아들이려는 참인데 다른 고을로 옮기게 되면 착오가 생길 것 같다」는 노골적인 비호 狀啓를 올리는 철저한 유임 공작의 성공으로 1894년 1월 9일 이조에서 특별히 그대로 유임(特爲留任)시켜 고부군수로 다시 오게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고부 농민들은 1월 11일 전봉준, 金道三, 鄭益瑞 등 3狀頭를 중심으로 수천명이 禮洞에 모여 조병갑의 학정을 날날이 폭락하고 제폭구민을 역설하면서 봉기하였다.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 무기고를 부수고 부상한 후 아전들을 처벌하고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세미를 변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석보 밑에 새로 쌓은 독을 터놓고 읍정을 장악하면서 1월 17일에는 말목(馬項)장터에, 1월 25일에는 白山에 진을 쳤다.

조정에서는 2월 15일에야 보고를 받고 조병갑을 잡아다 죄를 물어 다스렸고 朴源明을 고부군수로 임명하고 장흥부사 李容泰를 안핵사로 보내 사태를 수습케 하였다.

박원명의 간청으로 폐정을 시정케 하고, 군중들은 모두 해산했으나 이용태는 역졸 8백명을 거느리고 3월 20일 도착, 민란을 동학도들의 소행으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가옥을 태우며 가족들을 살상하는 횡포를 서슴

치 않아 농민들의 원한은 극에 달하였다.

오래전 부터 여러 형태로 맥을 이어왔던 고부민란사는 봉건제 해체의 모순과 갈등속에서 인내의 한계를 초월한 수탈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봉기하였지만 조병갑 개인에 대한 분풀이로 끝을 낸 국지적인 농민항쟁의 보편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4. 東學農民革命

1894년(高宗 31)1월 10일(양 2월 15일) 고부官衙를 습격 稅米를 貧民에게 나누어 주고 萬石湊를 파괴해버렸다. 이때 봉기한 농민을 東學徒로 취급하여 彈壓하자, 다시 분격된 농민들은 「輔國安民」을 외치며 3월 봉기(양 4월 26일)의 이른바 白山起包로 茂長, 高敞, 興德, 靈光, 井邑, 古阜, 扶安, 金溝, 金堤등 이웃 고을의 농민 수천명의 호응을 얻었다.

이때 全瑋準을 總大將, 金開男, 孫和中을 總管領으로, 金德明, 吳時泳을 總參謀, 崔景善을 領率將으로, 宋喜玉, 鄭伯賢을 移書로 삼아 농민군의 規律과 體制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各號에 通文을 보내어 농민월기를 煽動하고 舉事의 大義를 밝히므로서 古阜 白山의 蜂起는 한 고을 민란의 테두리를 벗어나 執政에 挑戰하는 兵亂으로 그 性格과 規模를 달리하였다.

이때의 3월 봉기는 동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농민의 組織은 擴大一路에서 동학의 조직을 이용하였고, 그 指導層에는 동학의 敎徒가 많게 되자 古阜일대의 首領들은 모두 도망하고 각 官衙의 구실아치와 軍務屬役(軍校)등까지 四方으로 흩어져서 여러 邑城들은 동학농민군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다. 동학농민군은 抗戰의 隊伍를 갖추어 3월 29일(양 5월 4일)泰仁縣의 官衙를 습격하여 武器庫를 부수고 武器를 탈취하는 등 거의 같은 시기에 舉事를 일으켰다.

〈古阜民擾日記〉에 3월 20일(양 4월 25일) 茂長동학군 수천명이 屈峙(高敞郡 富安面 鰲山里에 있는 고개길)를 넘어 苗浦를 통과하여 4월 3일 扶興驛(현 扶安郡 幸安面)에 이르고, 高敞동학군은 3월 29일(양 5월 4일)에 출발, 무장과 고창의 동학군이 합류하여 4월 4일 扶安縣衙를 점령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白山起包에서 주력을 이룬 것은 孫和仲包가 이끈 茂長의 동학군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초 동학농민군 계획은 茂長에서 古阜, 泰仁, 金溝를 걸쳐 全州로 진격할 계획였다. 그때 白山起包에서 호응한 고창지방의 동학군의 출병내력을 보면, 頭領(將領) 吳河永, 吳時永, 林亨老, 林天瑞등 영솔하에 1,500명, 무장의 두령 宋敬贊, 姜敬重등 영솔하에 1,300명, 興德 두령 高永淑 영솔하에 700명이 그리고 軍長급 인사로 고창에 洪樂觀, 洪桂觀 무장에 宋文洙, 宋珍浩, 張斗一, 郭昌旭, 洪덕에 高永伯 등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고부를 중심으로 전라도 각 처의 동학의 두령들은 각기 모여든 군중을 이끌고 고부 백산으로 모여들어, 대오가 정비된 동학농민군은 輔國安民의 기치를 내세우고 부대의 편성과 기강을 발표하므로서 전쟁으로의 전환을 가져 오게 되었다.

전주 營兵이 출동한다는 정보에, 전주 진격을 일단 멈춘 동학농민군은 4월 6일(양 5월 10일) 고부군 道矯山에 진을 쳤다가 黃土峴에서 爲計戰術로 기습을 퍼 관군을 격멸하는 大捷을 거두고, 정읍의 관아를 습격하여 군기를 접수하였다. 이 날밤 고부 三巨里(현 井邑郡 所聖面 所在地)에서 숙영하며 舉事를 圖謀하였던 茂長의 동학군은 編制와 隊伍를 재정비하고 전력강화를 위해서 남쪽의 여러 郡·縣을 점령하고자 이튿날 4월 8일(양 5월 12일)오전에 洪덕 관아를 습격, 군기고를 부수고 탄약과 조총, 창검, 화약 등을 탈취한 후 정오 경에는 고창을 진주하였다. 이들은 먼저 옥문을 파괴하고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던 동학교도 7명을 석방하고 東軒과 衙舍를 부수고 들어가 印符를 접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縣監 金思濬이 이미 접을 먹고 도피해버려 화가 치민 이들은 군기를 접수하고 帳籍(戶籍簿)을 압수한 후 使令廳·奴廳·作廳·風和樓·拱北樓를 제외한 縣衙를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또한 이들은 城 아래 東部里에 있는 土豪 殷大靜의 집으로 몰려가 가산을 파괴하고 소각한 다음 이 날밤 고창읍에서 머물렀다.

이러는 동안 동학농민의 勢는 날로 늘어 1만 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날밤 고창에서도 많은 수의 동학교인과 농민들이 이에 가담했었다.

4월 9일(양 5월 13일)동학농민군은 무장으로 진입했다. 동학농민군의 무장진주상황을 전라도 감사에게 무장 衙吏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오후 3시경(申時)에 1만 여명이 읍내로 밀려와 옥문을 부수고 옥중의 동학교도 44명을 석방하고, 座首, 首校, 官屬들은 붙잡히는대로 살해당했으며 城안밖의 7거리에서

죄를 저지른 인가를 모조리 소각해버렸다.

茂長은 동학농민군의 유력한 간부인 孫和仲包의 근거지로 동학세력이 우세했던 고장이다. 동학교도들에 대한 지방관의 탄압이 어느 고을보다 가혹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동학농민군의 무장현에 대한 응징도 강경했던 것 같다. 公兄의 보고에 의하면, 『성 안에서는 설새 없이 포를 쏘아대고 한편으로는 관속들을 색출하면서 또다른 한편은 성 밖의 狐山峰-여시되(현 茂長面 新村里 : 王帝山 西峰)에 設陣을 하고 있었다. 또 혹은 갑옷을 입고 총과 창으로 武裝을 한 동학군들이 城內를 누비고 다녀 성 안의 정황을 엿탐해낼 길이 없다』고 동학군의 삼엄한 경계태세를 말해주고 있다.

무장현의 신임 현감 金五鉉이 미처 부임해오지 않아서 난을 면했으나 그는 부임도 못하고 곧 파면되었다. 여기에서 기록적인 사항을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흥덕과 고창을 습격할때에는 관아건물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으나 이곳 무장에서 무장출신 동학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東軒과 客舍등이 파괴되거나 소각을 면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완연하게 보존되므로서 文化財로 지정되는 귀중한 유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동학군은 무장에 입성, 3일 동안 머물면서 황토현 싸움 이래의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전주에 와 있는 洪啓薰 招討使가 거느리는 京軍의 추격에 대비하여 狐山峰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狐山峰은 표고 150m 고지에 불과하나 동학혁명군의 倡義布告地로서 意義를 되새겨 본다면, 황토현 대첩지가 聖域化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곳 호산봉이 전연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뜻 있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마땅히 史蹟地로 지정되어 길이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유적지임을 밝혀두고자 倡義大將 全瑋準이 선포한 이 檄文은 특히 戚族 權臣들의 학정을 통렬히 공격하므로서 爲政者들의 무능한 부패를 통박하고 輔國安民 廣濟蒼生의 대의를 강조하여 당시의 時弊를 가장 요령있게 지적하였으므로 전국의 식자간에 널리 轉送되었다.

동학 농민군은 4월 12일(양 5월 16일)에 다시 남하하여 다음날 정오에는 靈光에 이르고 이곳에서 4일간 머문뒤 4월 17일에는 咸平, 務安을 거쳐 羅州로 진주하였다. 그리하여 전라도는 거의 동학군에 휩쓸리고 충청도에서도 여러 읍이 이에 호응하였다. 동학군은 이른 곳마다 軍器를 뺏고 죄인을 석방하는

한편 軍勢강화에 진력하였다. 朝廷에서는 4월 2일 洪啓薰을 兩湖南 招討使로 임명 京軍 800명의 군사를 이끌고 仁川을 출발, 4월 6일 群山에 도착하여 全州에는 4월 7일 入城하였다. 다시 500여명을 증원하여 法聖浦에 각각 상류시켰으나 동학군에 참패당하고 말았다. 4월 23일(양 5월 27일)동학군은 長城 黃龍川(長城郡 黃龍面 月坪里 현 長城邑 南界)에서 京軍과 접전, 대승을 거두고 그 여세를 몰아 川原, 井邑, 泰仁, 院坪, 金溝를 거쳐 4월 27일(양 5월 31일)에는 全州를 점령하였다.

이때 淸나라 원군이 충남 牙山에 상륙하자 평소에 조선으로 부터 청국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전쟁준비를 서둘러왔던 日本도 仁川에 군대를 상륙시켜 사태가 암담할 조짐이 있자, 정부는 동학군을 회유 해산시킬 필요를 느껴 휴전을 교섭 전주에서 강화를 맺었으나 정부의 강화조건 불이행과 6월 27일(양 7월 26일)淸日戰爭 발발로 동학군은 9월 12일(양 10월 10일)의 參禮회의를 기점으로 이른바 9월 재봉기를 단행, 재기한 동학농민군은 각 고을에 보관 중이던 무기를 거두어 재무장하였다. 全琫準을 총대장으로 하고 孫和仲, 金德明을 총지휘로 하여 호남 53군현의 東學執綱所에서 16만 명의 군세를 확보하여 일제히 재기하였다. 林天瑞, 林亨老는 5,000군을 거느리고 고창에서, 宋敬贊, 宋文洙, 姜敬重은 7,000군을 거느리고 무장에서, 高泳淑은 2,000군을 거느리고 홍덕에서 각각 봉기하므로서 14,000명의 고창농민군이 형성된 셈이다.

호남에서 재기의 불이 붙은 동학들은 湖西중부에 이르러 속속 봉기하여 탐관오리를 퇴치, 양반들을 응징하여 억울한 민중의 舊恨을 풀었으니 당시 각지의 東學 起包數를 보면 민중의 한이 얼마나 절절히 맺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전라도 203, 경상도 6, 경기도 14, 강원도 5, 황해도 20, 도합 248기포로, 이중에서 82%를 점유하는 곳이 전라도로 가장 많고 그 중 고창의 起包數도 11(고창 4, 무장 6, 홍덕 1)곳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된 동학농민군은 경기, 강원, 황해도에 이른 파죽지세의 열기를 올렸고 동학의 과격파인 南接의 全琫準, 金開南 등과 온건파인 北接의 崔時亨, 李容九등은 미묘한 균열 대립의 입장에서 항일투쟁의 명분앞에 타협이 이루어져 全琫準의 호남군과 孫秉熙의 호서군은 세 길로 나누어 論山을 거쳐 公州에서 官軍과 日本軍의 연합군과 대결하여 격전분투하였으나 근대식 훈련과 장비를 갖춘 일본군에 패배하여 퇴각하였다.(魯聲, 全州, 院

坪, 泰仁 등으로).

全琫準은 재기를 꾀하였으나 배반자의 밀고로 12월 2일(양 12월 28일) 淳昌에서 체포되어 이듬해인 1895년 3월 29일(음)서울에서 처형되므로서 1년간에 걸친 동학란은 30~40만의 희생자를 내고 그 막을 내렸다.

한편 全琫準의 북진 동학군과는 별개(달리)행동으로 일본군의 羅州해안상륙에 대비하여 나주에 머물고 있던 孫和仲, 崔景(永)善은 공주 패전후 동학의 최후의 항전을 위해 전라도의 남북지방의 동학농민군을 나주로 集結시켜 起兵을 꾀하였다. 이때에도 고창지역의 동학군 출병은 수천명에 달하였다.

장성 儒生 봉남 邊萬基가 쓴 〈鳳南日記〉의 관전내용을 보면, 10월 28일 고창의 동학군 1,000여명이 고수면 殺夷峙를 넘어 석양에 黃龍장터로 이동집결하였고, 11월 22일에는 고창동학의 두령 林天瑞가 기병하여 咸平으로 출진하였으며, 이 날 돌 흥덕, 고창의 동학군 1,000여명이 起包將 張東行의 인솔하에 나주로 행군하여 갔는데 이때 흥덕의 大接主에는 高永淑, 고창의 접주 洪東寬이었다. 11월 24일 井邑 笠岩面 登川里(등내)와 고창 동학군 수천 명이 장성고을에 留陣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동학혁명사에서 고창 출신의 동학농민군 가담자는 기록적인 자료로 보아 19,500명이나 되어 그 참여도는 정읍과 함께 가장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참고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창 출신 동학농민군 및 관계 인명을 수록하기로 한다.

總參謀 : 吳時泳(一說 高敞吳氏 : 高敞邑 堂村里)

祕書 : 鄭伯賢(孔音面 九井 : 全琫準 將軍 祕書)

隨行 : 金興燮(茂長面 院村 : 全琫準 隨行員)

頭領 : 高敞—吳時泳, 林天瑞, 林亨老

茂長—宋敬贊, 姜敬重

興德—高永(元)淑(1894. 12. 26井邑에서 死刑, 星內面 龍橋里)

軍長 : 高敞—洪樂寬(觀)(46才 : 杖1百, 流三千里), 洪桂寬(觀)

茂長—宋文洙(1894. 12. 3靈光에서 死刑, 孔音面 堂山里), 宋珍浩,

張斗一, 郭昌旭(玉)

興德—高永伯

執綱 및 起包將 : 高敞—張東行

金琇炳(高敞邑 月谷里. 1894. 12. 6高敞刑場에서 處刑, 孫, 在德·在洙)

嚴大永(高敞邑 德山里. 1858 生)

茂長—崔西仲(1894. 12. 28光州에서 處刑)

宋秉郁(海里面 水洛, 孫, 在鉉)

金炳云(1894. 12. 12逮捕 梟首)

朴景錫(死亡 1894. 12. 12物故)

東學軍 및 教人 : 高敞—禹福祿(起包將 崔西仲의 馬夫로 1894. 12. 28處刑)

徐在成(教人), 李同述(教人)

茂長—高順宅(38才 : 1895. 3. 29無罪로 釋放)

梁相集(1895. 1. 16押送)

宋辰八(外 18名 1894. 12. 12押送)

興德—徐相殷(星內面 隱洞 1894. 12. 11興德統營軍에 處刑, 1869 高宗 6년생, 字 王汝, 號 松菴)

沙鉢通文署名者 : 鄭鍾赫(1862년 初名 鍾默, 號 三河, 富安面 劍山里)

黃彩五(1854년 初名 聖模, 號 竹谷, 星內面 新星里 1894. 12. 16羅州에서 死刑)

關係人 : 李春京(高敞縣 都使令으로 東學教人 徐在成, 李同述가 內通하여 官軍의 기밀을 提報했다는 事由로 1894. 4. 20招討使 洪啓薰으로부터 逮捕令 내림)

李鳳宇(본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甲午年 봄에 高敞에 들어와 孫和仲의 部下가 되었던 者로 富安面 鞍峴里 李某氏의 祭室直으로 있었는데 東學軍이 패하여 그 祭室로 隱身하여온 頭領 孫和仲을 官兵에 附和한 그가 1894. 12. 11에 密告하여 逮捕케 한 功으로 甑山郡守을 얻은 者)

姜成之(高敞에 사는 土豪로써 甲午年初 東學에 入徒하여 執綱職에 있으면서 東學軍의 高敞入城을 전후하여 東學軍의 勢力을 많이 부려 그의 生命을 保身하였다가 東學이 패하자 재빨리 돈을 써서 高敞縣의 守城將이 되어 東學軍을 무수히 죽이고 괴롭힘을 주었던 者)

Ⅲ. 全瑋準의 胎生說에 관한 糾明

지금까지 발표된 전봉준의 태생설은 그 설이 구구하여 분명하지 못하나 크게 알려진 태생설 몇가지를 놓고 그 眞相을 규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그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州 龜尾里(龜尾里 : 完州·鳳東面)태생으로 어려서 泰仁縣 甘山面(柱峰里 : 甘谷面 황새얼)으로 移住하였다는 설

둘째, 泰仁縣 山外面 東谷里 知琴谷[지금실]태생설

셋째, (현 : 古阜郡 宮洞面 柿木里)태생이라는 설

넷째, 古阜郡 宮洞面 柿木里[감냉기]태생설

다섯째, 高敞縣 德井面 堂村(현 高敞邑 德井里 堂村部落)에서 출생하여 少年期에 古阜로 移居하였다는 설 등이다.

여기에서 全州 태생설(張奉善의 《井邑郡誌》全瑋準 實記)은 뒷날 전주 사람들이 그를 崇慕하여 꾸며낸 말이라고 하며(金義煥의 《全瑋準傳記》), 山外面 東谷里 知琴谷 태생설 (崔玄植의 《甲午東學革命史》)은 자료에 의하면 전봉준이 18세(1872)에 이거하여 20년간 우거한 것으로 추산되며, 마지막 寓居한 사실 이외에는 분명치 못하고(申龍福의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 또한 申教授의 새로운 주장에 의하면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 그 마지막 居處한 東谷里 知琴谷이 아니라 지금실과는 2km쯤 떨어져 있는 東谷里 원동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井邑郡 梨坪面 烏巢마을 태생설(金庠基의 《東學과 東學亂》등)은 地方文化財 紀念物 第19號로 指定된 舊居를 1974년 補修工事할 때 1878(戊寅)년 2월 26일 자의 上樑이 나타나게 되어 生家라던 이집은 전봉준이 23살때 지은 것이 확실해져 그동안 술하게 生家로 美化된 이야기들이 一蹴해버렸고 文化財 名稱도 舊居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또한 1895년 2월 9일 日本領事の 問招에 대한 전봉준의 대답을 기록한 裁判 記錄인 《全瑋準 供草》중 일차 供草에 보면,

『너는 태인에게 살았는데 古阜에서 亂을 일으킨 理由는 무엇인가(汝居生泰仁地 何故起?古阜乎)』에 대해

『泰仁에서 살았지만 古阜로 移畝한지 몇년 된다(居生泰仁 移寓古阜 爲數年

矣)』

『그렇다면 古阜에는 너의 집이 있는가(然則古阜有任(汝)字乎)』

『난리에 불에 타고 말았다(入於燒灰中矣)』

하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의하면 文化財로 指定된 그 自體가 再考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연 전봉준이 世家를 이루고 살던 舊居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쉽사리 떨쳐 버릴수 없는 대목이 너무도 重疊되고 있는 실정이다.

『數日賊李斗璜所追 窮 海南界地 盡無可走 斗璜與李圭泰及倭人合 舊擊大破之 斬三萬六千余級』

이것은 全南康津 땅에서 東學軍 慘敗, 慘殺相을 예시한 것이다. 물론 과장을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한 고을에서의 참살이 36,000이라니 얼마나 혹독한 報復인가? 이 처참한 보복 속에서 전봉준의 舊居가 侵害없이 오늘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상을 들쭉서 놓은 東學匪賊의 魁首집을 官家나 土豪의 民兵들이 과연 온전하게 놔 두었을까?

日本人 史學家 菊池謙讓 일행도 50년전 井邑, 古阜일대를 살살이 밟으며 東學亂과 全瑋準의 遺蹟史話를 찾아 다녔지만 전봉준의 태생에 관한 究明資料를 얻지 못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는데, 年代로 보아 東學革命 당시의 加擔者들이 능히 生存해 있을 때인 日帝시대에 日本人 전문가가 나서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면 이상의 井邑쪽 기록의 虛構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8·15光復 이후에 슬그머니 生家が 나타나고 一家가 나타나서 養孫이 정해지면서 歷史의 테를 매놓은 것이다.

德川面 柿木里 태생설은 그 信憑說을 申龍福교수가 그의 著書(《전봉준의生涯와 思想》)에서 言及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당시 井邑에서 알려진 文章家로 東學革命 때 활약하여 전봉준과 親熟한 사이였다는 邕宅奎(1852~1928)의 孫子인 邕京源(1912년생, 井州市 光橋里 172의 2)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邕京源이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분명히 柿木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고, 그가 어렸을 때「전봉준의 집에 차려진 書堂에서 글공부한 事實」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의 말을 듣고 信憑을 해야 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사정이다.

高敞邑 竹林里 堂村 태생설은 다른 곳의 주장과는 달리 우선 기록면에서 확실한 것을 엿볼 수가 없다. 吳知泳이 지은 《東學史》(p. 168)에서

『전봉준은 全羅道 高敞縣 德井面(본래 五東面인데, 面事務所가 德井里에 있어 일명 德井面이라고도 불리웠음)堂村 태생으로 世代 士林家 사람으로 자라서 古阜陽橋里와 全州 龜尾里며 泰仁洞 口川등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流浪生活을 하였다』

고 記錄하고 있다.

[註] 1) 全瑋準의 出生地나 居所가 紛紛한데서 알 수 있듯이 全瑋準의 아버지는 한 곳에 定着하지 못한채 여러 곳을 移徙다녔는데, 특히 〈秘記〉를 믿어 天下의 明堂을 찾아 한 때나마 자리잡고 살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모든 기록들이 귀결해주고 있다.

2) 또한 族譜의 기록에 의하면, 先代 墓所地에서도 陰宅 明堂地를 찾아 다닌 痕迹을 엿 볼수 있다. 5代祖(泰仁 古縣面), 高祖(南原 北面), 曾祖(淳昌 下峙洞), 祖老(任實 江津面), 伯父(任實 江津面), 從兄(高敞 德井面), 弟(高敞 德井面), 堂叔(井邑 西二面), 再從弟(井邑 西二面), 再從弟嫂(高敞 德井面), 堂姪(高敞 德井面).

吳知泳은 본래 高敞출신이었는데 益山으로 移居하여 살았다고 한다. 그는 高敞과 全瑋準을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고 또한 기록할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지은 《東學史》에 새로 밝혀진 草稿本의 序文을 보면 1924년에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政勢때문에 뒷날 出刊(1940)되었지만 東學革命에 직접 加擔者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써낸 유일한 冊이다.

그는 《東學史》(p. 178)에서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兩湖都察로서 全羅, 忠淸 兩道사이에서 接(東學의 傳導人·受道人 사이에 이루어진 淵源을 基盤으로 한 組織으로서 地域組織이 아님)과 接 사이의 일과 道人和 道人사이의 일을 攄察하다가 公州 싸움에 패한 후 益山, 全州 사이의 軍을 다 解散하고 西海岸으로 피신하여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잠시동안 楊州 妙寂庵에 隱居하여 歲月을 보내던 중 마침내 天道敎 敎役者가 됨』

또한 《天道敎百年史》(p. 245)에는

『東學革命이 反封建的 運動에서 反侵略的 運動으로 方向轉換을 한 東學軍의

2차 九月起包때 吳知泳은 益山에서 吳景道, 高濟貞 등과 함께 蜂起하였다』

선비意識이 투철한 吳知泳의 家系는 항상 義를 崇尚하는 高敞人의 氣質이 이어오고 있어 東學 農民革命이 일어났던 白山蜂起때 高敞縣에서 1,500명의 農民軍을 이끌고 나선 主謀者 吳河泳, 吳時泳도 또한 그의 집안이었다고 한다.

IV. 堂村胎生說의 배경과 고증

다음으로는 筆者가 20여년간 꾸준히 조사한 堂村胎生說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몇 가지 제시하므로서 考證을 삼고자 한다.

1. 族譜에 의한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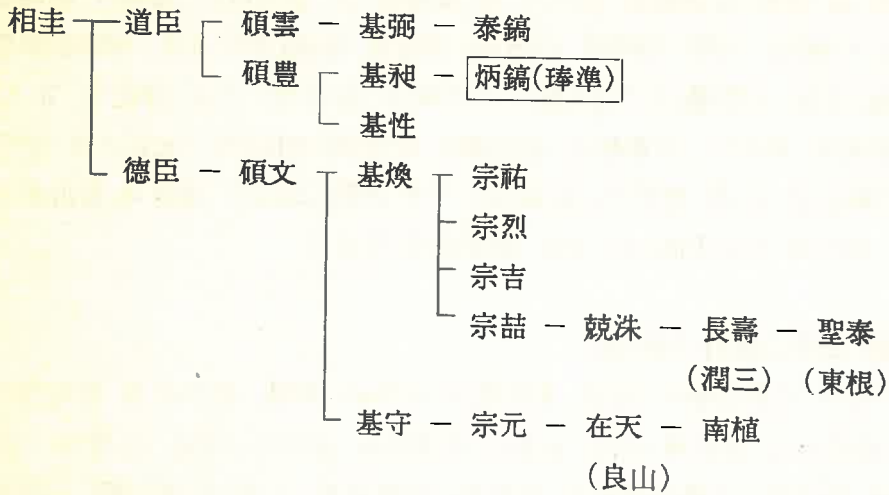
먼저 高敞郡內에 살고 있는 天安全氏들의 世居分布을 알아보았다. 栢軒(文孝)公 派孫들이 孔音面 新垞里·龍水里, 大山面 井洞, 大山面 德川里 등지에, 三宰公 派孫은 新林面 碧松里 일대에, 大提學派는 高敞邑 道山里, 雅山面 下甲里에, 兗平君派는 心元面 月山里, 茂長面 茂長里, 星內面 富德에, 判決事供派는 雅山面 九岩里 등에 散居해오고 있다.

여기에서 筆者는 이와 같은 集姓村外에 한두 집씩 문혀 사는 全氏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특히 高敞 竹林里 堂村, 德井里·新月里 등을 중심으로 여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난 全氏들을 集中的으로 조사해 나갔다.

德井리에 世居해오고 있는 曹鎭煥(1899, 己亥생 91세)씨의 證言과 古老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德井에서 雇入살이하다 新林面으로 移居하여 2대째 雇入살이하던 全東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自己 祖上대의 族譜를 숨겨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밝혀진 全琫準 世系圖]

(天安全氏 文孝公派)



[註] 全東根의 아버지 全長壽(字 潤三, 1885~1941)는 德井里에서 雇立살이를 시작하던 10세 때부터 집 주인이 「金潤三」으로 變姓名시켜 平生을 戶籍도 없이 「潤三」이란 이름을 갖고 살았다 한다.

堂村에 살던 全琫準의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멸족을 당할 때 어린 「潤三」이는 德井里 書堂에 왔다가 禍를 면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등 넘어 竹林里에 꾸어왔던 양식을 갚으러 간 사이에 禍를 면해, 온 집안이 몰살당하고 세간은 물론 가옥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몰아 죽여 불질러 버렸는데, 다행히 살아 남아 불타는 집 속에서 族譜(6권)을 건져내었다.

그후, 「潤三」을 만난 어머니는 李博士(成均館 博士)宅에서 食母살이를 하면서 「潤三」이와 한 마을에서 숨어살게 되었다. 두 母子의 형편을 알고 있는 마을사람들이 숨겨주어 아무탈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

「潤三」이는 1931년 그의 아들 聖泰(字 東根)가 8살이 되면서 新林面 龍岩村으로 옮겨 雇入살이를 했다. 아들 東根이도 자라서는 2대째 머슴살이를 하며 숨어 살면서도 아버지가 물려준 族譜를 「고추꾸러미」속에 싸서 측간 모퉁이에 감추어오면서 지금껏 소중히 간수해오다가 筆者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搜所聞한 결과 新林面 龍岩村에서 全良山(壬寅年 : 1902)을 찾게 되었다. 全東山을 통해 全東根을 만나게 된 筆者는 그 숨겨다닌 族譜가 全瑋準將軍 生時인 1886년 이후 1894년 이전에 刊行된 族譜[天安全氏 世譜新序를 1886(丙戌 秋)恩津 宋秉璫(大司憲)書로 기록되고 있다]인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 族譜에 의하면, 全東根은 全瑋準의 從曾祖(德臣)의 7世孫으로 전봉준과는 11寸間임을 알 수 있었고, 全良山은 9寸 之間 그리고 東根과 良山은 8寸間(大父 : 祖父와 同行列間)인 것을 確認하게 되었다.

2 全瑋準은 三宰公派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史學者들이 펴낸 東學관계 서적을 보면, 전봉준은 天安全氏 三宰公派로 紹介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歪曲이요 造作이 아닐 수 없다. 癸巳年(1953)에 발간된 三宰公派譜에 의하면, 전봉준의 上系가 興德縣 一西面(舊 碧沙面)碧松里 全氏로 내려오다가 祖父代부터 井邑郡 梨坪面 烏巢里로 옮겨졌고, 그 어머니(1848년생)가 前봉준을 8才(1855)에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筆者가 그동안 추적, 조사해본 결과로는, 癸巳譜는 壁松里 三宰公派 후손들 중 文章으로 알려져 있는 全貴夢이라는 분이 완벽하게 꾸며낸 造作劇임을 알 수 있었다. (本人이 말한 내용을 全良山이 들려주었던 녹음테이프를 갖고 있음). 앞 뒤가 맞지 않고, 조작하게 엮어진 내용을 學界가 지금까지 一考의 餘地도 없이 그대로 인용해오고 있는 것도 學術的으로 큰 誤謬가 아닐 수 없다.

어느 學者는 요즈음 高敞胎生으로 표가하는 분도 있으나 그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前봉준의 養孫(全萬吉 : 井邑郡 北面 南山里)도 역시 碧松里 全氏와 같은 脈絡의 三宰公派 후손으로 入籍시키고 있다. 그러나 逆敵으로 물리면 三族을 滅하는 판에 井邑에 살고 있는 三宰公派 후손들 중에, 그리고 碧松里에서 7代째 世居해오고 있는 三宰公派 全氏들이 그렇게도 고스란히 無事할 수가 있었을까 疑問이 제기된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東學革命 당시 高敞郡內에서는 유일하게 堂村全氏(文孝-栢軒公派)들만이 慘禍를 당한 것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어느쪽이 前봉준 집안 인가를 明若觀火하게 판단될 줄 믿는다.

3. 東學革命運動의 狀況의 判斷

전봉준, 孫和仲 등 동학혁명 때의 指揮者들의 死刑判決原本을 入手한 서울대 慎鏞廈교수의 主張(1985년 6월)에도 明示된 바와같이 甲午革命運動의 첫 蜂起地域은 古阜가 아니라 高敞 茂長이었음을 먼저 想起하고자 한다.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甲午革命運動이 일어나기 3~4년전부터 전봉준은 茂長 땅인 孔音面 九井(亭)洞에 世居해온 栢軒公派 후손들 집안에 據點을 확보하고 孫和仲과의 學事計劃과 謀議를 이곳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古老들의 이야기를 集約할 수가 있다.

전봉준은 茂長에서 4,700여명의 高敞지역 農民軍을 이끌고 古阜로 가서 農民軍을 대폭 강화하여 白山起兵과 黃土峴의 官軍을 격파하였다. 당시 東學의 勢로 보아도 茂長은 孫和仲包의 근거지로 全羅道內에서도 金溝 院坪과 아울러 東學이 가장 득세하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짐작이 간다.

또한 全장군의 學兵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民亂이 아니라 그의 오랜 계획과 야심 끝에 이루어진 革命의 序幕이요, 다른 하나는 甲午년 정월의 첫 起包만은 東學과 전혀 관계없는 民亂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으므로 高敞 현지에서 자료조사라도 해보면 '계획적인 거사였음을' 실감할 수 있다.

招討使 洪啓薰이 이끄는 平定軍의 銳氣를 피하기 위해 甲午년 4월 7일 새벽 黃土峴 戰勝을 거둔 東學農民軍은 이 날로 井邑을 점령하고 古阜三巨里에 留陣하였다가, 4월 8일 아침에 興德과 정오에 高敞을 습격하여 獄에 갇힌 東學徒를 방면하고 軍器를 거둔 후 官衙를 불지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官軍만을 의식하고 農民軍을 과소평가한데서 오는 편견으로 볼 수 밖에 없다. 平定軍과의 접전을 의도적으로 農民軍이 회피하고자 남긴 것이 아니라 革命의 謀議的 溫床이 茂長이었기 때문에 革命의 기반구축을 위해 미리 內通이 되어 있는 興德, 高敞, 茂長으로 진격하여 農民軍을 규합 隊伍를 정비하고 官衙를 점령, 무기를 점수하여 火力을 강화하므로서 民心을 모으는 전략적인 의도를 성급하게 속단하는 것은 卓上空論의 禁物이 아닌가 싶다.

高敞에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규합된 農民軍은 1만명을 헤아리게 되었고, 4월 9일 茂長에 당도한 東學農民軍은 현아공해를 타파하고 갇혀있는 東學敎徒 40여명을 석방하였다. 茂長에서는 관속들의 내통이 있었던 고로 東軒과 客舍가

고스란히 살아남게 되었다. 소장군은 요소의 경계를 엄중히하여 官屬의 搜探과 京兵등들의 情探에 대비해 나갔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하여 방위와 공격에 유리한 지세인 狐山峰에 設陣하고 3일간에 걸쳐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여기에서 유명한 역사적인 倡義文을 만천하에 발표하여 거의의 취지를 천명하고 학정을 통격하여 輔國安民 廣濟蒼生의 大義를 밝히었다. 그리하여 高敞郡內의 1~2차에 걸쳐 東學蜂起에 가담한 延人員은 무려 2만을 육박하게 되어 革命의 주축을 이루었다.

또 한 가지는 소장군의 親衛隊 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이고자 한다. 1894. 3. 21의 白山蜂起때 東學軍의 편성을 보면 倡義大將에 全瑋準, 總管領孫和仲, 金開南, 總參謀 金德明, 吳時泳, 領率將 崔景善, 祕書 宋喜玉, 鄭伯賢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祕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보면, 祕書란 自己의 心服이나 철저한 신임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듯이 宋喜玉은 소장군의 妻家の 재종질이므로 그 신임이 두터운 처지이나 鄭伯賢은 孔音面 九井사람으로 사실상 신임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革命의 모의가 茂長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祕書라면 두터운 분의 추천이 따를줄 알지만 사전에 能力과 筆力(당시에는)그리고 長·短點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천거의 절차가 따르는 것으로 사료될 때 鄭伯賢을 몇 년에 걸친 모의과정에서 소장군이 옆에 두고 보조업무를 관장시켰으며 筆力과 文章力이 월등했던 점을 감안하여 그를 正祕書로 임명한 것을 보면 가히 짐작이 간다.

鄭伯賢의 諱는 根永, 號는 梧隱으로 貫鄉은 晉州이다. 26세때 祕書가 된 그는 族叔인 竹史 鄭學源門下에서 修學한 才骨이었으며 매우 敏捷하였다고 한다. 또 소장군의 陣中修行員(警護員)도 茂長面 院村里 松山 出身이었다. 茂長 東學接主였던 金聲七의 長男인 金興燮(1874~1965)이 張本人인데 그에게서 많은 實談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1893년 12월 10일 冬音峙面(孔音面)堂上里 宋文洙宅에서 孫和仲에 의해 천거되었다고 한다.

宋喜玉은 井邑 출신으로 門族之親일뿐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는 얘기이며, 高敞출신들이 同憐之親의 重任을 맡은 사례들을 놓고 보면 全瑋準이 高敞에서 革命을 모의하고 거사를 준비하였다는 심증이 가고, 오랜 기간을 鄭伯賢과 近

接하였다는 順理의인 立證이 아니겠는가.

이상의 몇 가지 事例들이 전봉준의 胎生說을 뒷받침해 주는 反證이 되리라고 믿는다.

V. 맺는말

朝鮮朝 5백년을 두고 歷史의 물결을 이루는 主人公은 兩班階級이었다. 그러나 그 主人公들이 腐敗했을 때, 歷史의 수레바퀴는 새 물결의 새 主人을 탄생시키기 위해 어김없이 굴렀었다. 東學革命이 일어났던 社會的·歷史的인 背景도 돌이켜보면 그 兩班階級의 가림주구에서 비릇되질 않았던가?

전봉준의 고향이요 東學革命의 起暴劑가 되었던 義鄉 高敞은 예로부터 天惠條件이 좋아 高麗朝 이후 사패지지를 물려받은 선택받은 百姓들이 集團居住地가 되어 왔고, 「고려가 망하자 ~가 되어 왔으며」조선조 이후 流配客들의 避身處가 되고 있어서 매우 義를 崇尚하는 선비정신과 義民의 風潮가 팽배하여 나라와 백성이 어려웠을 때는 隱遁이나 초연이 아니라 항상 先頭에 나서서 義를 行하고 지켜온 고장이었다.

壬辰倭亂을 위시해 丙子胡亂, 東學革命 그리고 乙巳條約 이후의 義兵活動期에 이르도록 高敞 사람들은 決然히 義兵倡義의 旗幟아래 목숨을 草介와 같이 바칠 줄 아는 義人意識을 發揮해 왔었다. 記錄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高敞地方에 솔하게 깔려 있는 東學革命의 茂盛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高敞사람들의 높은 氣概를 實感할 수가 있다.

史家들에 의해서 井邑郡 山內面 東谷이 寓居地임이 判別되었고, 生家라고 추켜 세우던 古阜塲 鳥巢里의 집은 全瑋準이 23세 때 건립된 建物임이 밝혀졌으므로, 나머지 胎生說은 高敞뿐이라는 막연한 限界的 歷史認識을 과감히 脫皮하여 興件이 成熟된 高敞사람들이 歷史의 場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胎動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이 事實이 바르게 究明되어야 歷史의 誤謬로 인해 지금도 九泉을 해매고 있는 全瑋準將軍을 비롯한 수많은 원혼들이 고이 잠들게 될 줄 믿는다.

전봉준이 高敞胎生이었다는 이 假說이 成立된다면, 東學革命史의 方向은 마땅히 古阜民亂을 起點으로 하는 偶發的인 視覺에서 歷史의 大流를 바로 잡고

자 하는 意圖의이고 愛國的인 民衆意識의 바탕 위에 꽃 피워진 歷史의 大行進이었음을 밝히는 契機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脈絡위에서 지금까지의 國史學界의 通說에 대하여 鄉土史를 守護하고자 하는 끈질긴 규명의식과 過渡期的인 狀況下에서 歪曲된 歷史意識을 是正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鄉土史家의 立場에서 忍耐와 끈질긴 努力의 結晶인 이 假說을 提示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國史編纂委員會編 〈東學亂 記錄〉(探求堂)
- 李炫熙著 《韓國近代史와 民衆意識》(探求堂, 1981)
- 申龍福著 《全瑋準의 生涯와 思想》(養英閣, 1982)
- 吳地泳著 《東學史》(民學社, 1975)
- 天道敎史編纂委員會刊 《天道敎百年略史》(上卷, 1981)
- 崔玄植著 《甲午東學革命史》(금강출판사, 1980)
- 金義煥著 《全瑋準傳記》(正音社, 1974)
- 黃 玆著 《東學亂》(正音社, 1978)
- 金庠基著 《東學과 東學亂》(한국일보사, 1975)
- 李炫熙著 《東學思想과 東學革命》(청아출판사, 1984)
- 李離和著 《역사인물 이야기》(역사비평사, 1984)
- 柳鍾琪編著 《東學革命》(東學思想研究所, 1979)
- 愼鏞廈著 〈甲午農民戰爭과 두레와 集綱所〉,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文學과 知性, 1987)
- 崔仁旭著 《東學革命思想과 全瑋準》, 〈全瑋準判決宣言文〉(나라사랑 15집, 1974)
- 金容燮論文 〈全瑋準 供草의 分析〉, 《史學研究》(1~4) (韓國史學會, 1980)

茂長은 甲午東學農民革命의 發祥地

陳 鎮 洪

郵 政 史 家
茂長邑城保存事業會 고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전라북도 高敞郡 孔音面 九岩里 九水마을로 얼마 전까지 이곳에 큰 당산나무가 있어 당산리라고도 부른다. 옛 땅이름은 茂長縣 冬音峙面 堂山里이다.

이곳은 최근에 이르러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밝혀졌는데, 이곳 사람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다만 이곳에 무장 동학당의 본거지였다는 것과 이 마을앞에 펼쳐진 들판이 당시 동학농민군의 훈련장이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어 이러한 전설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늘 예정에 없던 이곳을 찾은 것인데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의 이 지점을 여러분이 맨 먼저 밟은 행운을 얻었다. 이는 우연한 결과일 것이 부디 오늘의 일을 길이 기억하여 앞으로 여러분이 역사학도로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특히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관심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갑오동학농민혁명에 관하여는 여기서 깊이 언급은 생략하겠거니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간 많은 자료의 발굴과 심도있는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거사의 준비과정과 거사의 정확한 시기 및 그 장소 등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사안의 중요성도 그렇거니와 불과 100년 전의 사실이 미궁에 빠져 있으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혁명의 발발시기에 대하여는 일찍이 天道敎측이 사학계 권위자의 자문을 거쳐 3월 21일을 동학혁명기념일로 정하고 1962년부터 이 날을 기하여 기념행사

를 치러왔고, 지난 3월 21일에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성대한 기념식전이 베풀어 졌다.

3월 21일을 기념일로 택한 것은 1894년(갑오년) 음력 3월 21일 전라도 古阜郡 白山에서 全琫準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하고 혁명의 기치를 올렸다는 소위 白山起包說을 근거한 것이나, 혁명의 일인이 되었던 고부민란이 신임 군수 朴源明의 회유에 의하여 3월 13일 경 일단 해산되고 全琫準을 비롯한 주모자급 인물이 타지역으로 잠적했다는 또 다른 기록과도 상치되고 기타 정황으로 보아 석연치 않은 점도 없지 않았다.

그후 1963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하여 강릉지방에서 「東匪討錄」이 발굴되었는데 첫머리에 이른바 무장 동학당 포고문이 실리고 그 끝에 쓰인 주기로 미루어 이는 전라감사 김문현이 전보로 보고한 것이며 4월 5일 오후 9시경에 정부에 도달했음을 짐작케 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여태까지의, 동학농민군이 黃土峴에서 대승한 뒤 井邑·興德·高敞을 거쳐 4월 9일 茂長에 이르러 이 포고문을 발표했다는 견해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으나 많은 연구자는 새로운 사실에 무관심했다. 1974년 7월 「나라사랑」 제15집에 발표된 전봉준 재판의 판결선언서에 “전봉준이 친히 그 도당을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 고부·태인·원평·금구 등지를 향하였다”는 귀절이 밝혀짐으로써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시발지가 무장이라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 거사시기와 거점 등 기본사항이 여전히 애매모호한 채 그 100주년을 맞을 뻔하던 차에 새로운 사료가 발굴됨으로써 그간의 의문이 해명되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 새로운 자료는 「隨錄」이란 이름의 필사본으로 총 123장에 이르며, 갑오년(1894년)3월부터 광무 2년(1898년)7월까지 4년에 걸친 주로 전라도지방의 관청사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갑오혁명에 관련되는 기록이 매우 소상하다.

이 문헌은 본디 일본 京都대학 기와이문고(河合文庫)의 소장본으로 지난 3월 14일 역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盧鏞弼 教授(서강대)에 의하여 집강소에 관한 부분의 기록이 발표됨으로써 일반에게 알려졌다. 편저자의 표시는 없으나 내가 고찰한 바로는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茂朱府에서 관변 루우트를 통하여 들어오는 중앙정부와 전라감영의 소식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무주는 지리

적 조건으로 혁명의 와중에서도 비교적 무풍지대에 속했던 관제로 관의 피해도 거의 없었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도 소상히 남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부터 「수록」에 기록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봉기과정과 진전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머리에 저 유명한 무장동학당 布告文이 실려 편저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무장현감이 膽書하여 전라감사에게 보낸 포고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함은 오로지 인륜(人倫)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의 의리는 인륜 중의 자못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비에게 효도한 연후에, 비로소 집과 나라를 이루어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럽고 백성에게 자애로우시며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시니 만약 아래로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 힘을 더하여 그 총명을 돕는다면 요·순(堯舜)의 덕화와 한나라 문제·경제(文景)의 치세를 가이 해를 보듯이 바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신하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봉록과 지위만을 도둑질해 차지하고 성상의 총명을 가리고 온갖 아부와 아양만을 일삼으며, 충성되이 옳은 말로 간하는 선비를 가리켜 요망한 말을 한다고 이를 물리치며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리어 비도(匪徒)로 몰아세운다. 안으로는 나랏일을 보살필 재목이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많아서, 온 백성의 마음이 날로 흐트러져 집에 들어서면 생업을 즐길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나가도 한 몸을 지탱할 계책이 없다.

포악한 정치는 날로 더해가고 원망하는 소리는 그치지 아니하니,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드디어 모두 무너지고 말았도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 즉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형세는 오히려 옛날 보다도 더욱 심하다 하겠다.

공경(公卿)이하 방백수령(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일신의 비대와 가문의 운택만을 꾀할 뿐, 벼슬아치를 뽑고 움직이는 일을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과거를 치르는 마당은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저자로 변하고 말았다. 백성에게 거둔 세금과 물건이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세도가의 사복만 채우고 있으며, 나라에는 빛이 쌓여 있는 데도 이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교만과 사치와 음란한 생활만을 일삼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릴 줄을 모른다. 이에 이르니 온 나라가 짓밟힐대로 짓밟혀 결단이 나고 만민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고을아치들의 탐학이 이러하니 어찌 백성이 궁하고 또 곤하지 아니하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이치인 데도 국가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방책은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향계(鄉第)를 꾸며 오직 일신의 온전만을 도모하며 헛되어 국록과 지위를 도적질 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에 버려진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또 옷을 얻어 입고 사는 터, 어찌 앉아서 나라의 멸망하는 꼴을 보고만 있겠는가. 온 나라가 마음을 같이 하고 억조창생이 뜻을 모아 이제 의기(義旗)를 들어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케 하고자 사생을 같이 하기를 맹세하고 일어섰으니,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라운 일이기는 하겠으나 결코 두려워 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생업에 충실할지며, 함께 다가올 태평성세를 빌어 성상의 덕화를 고루 입게 되었으면 천만 다행이겠노라.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말로 시작되어 당시의 부패의 극에 달한 사회상과 포악한 관료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치현실을 날낱이 지적하고 이제 더는 참고 견딜 길이 없는 지경에 이름에 백성된 도리로 이를 좌시할 수가 없어 폭정을 물리쳐 백성을 구원하며(제폭구민)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보국안민)는 명분을 내걸고 결기한다 하였다.

「수록」에 실린 포고문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것 중에서 가장 내용이 정확한 편에 속하나 그 시기에 筆寫된 것임이 분명한 다음 포고문을 참고하여 일부 자구를 바로 잡았다.

梧下記聞 (복사본)

東匪討錄 (영인본)

聚語 (동학란기록)

류텔문서 1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류텔문서 2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나는 일제 말엽인 1944년 12월 長城郡 西三面 산중으로 宋圭洛 선생을 찾은

일이 있다. 구한말 성균관 박사를 지낸 학덕 높은 분으로 젊은 시절인 갑오년에 전봉준의 휘하에서 활동한 과거사를 세세히 실토하면서 비밀히 간직하고 있던 동학란에 관련되는 방문을 보여주는데 내가 당시 吳知泳의 「東學史」를 탐독하던 때여서 오늘에 말하는 무장포고문임이 쉽게 이해되었다. 그런데 그 방문에 포고문·창의문 따위의 표제는 없고 오지영의 저서에 보이는 갑오년 1월이라는 발표시기와 全瑋準·孫和仲·金開南 등의 기명도 없었다. 그는 “오지영이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다.”고도 말하였다.

포고문에 이어서 3월 27일자로 全羅監司가 國王에게 올리는 狀啓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장에서서의 사전 준비상황을 보면 이렇다.

3월 22일에 접수된 茂長縣監 趙命鎬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16일 무장현 冬岾峙面 堂山里에 수상한 무리들 수천명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그 종적이 이상하여 여러가지 풍설이 돌고 있으므로 영리한 이속·장교를 비밀리에 보내 수탐한 즉 이들은 이 고을 사람이 아니고 거개가 다른 고을 사람인데 이 마을 민가에 모였으며, 말하기를 이들은 동학도라 하온 바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의 사이에 혹은 낮에 혹은 밤을 타고 사방에서 모여들어 거의 1,000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당산마을 앞의 들판에 진을 쳤는데 이곳은 靈光과 法聖浦의 접경지대 이다. 이들 가운데 수백명은 法聖 陳良面 龍峴里(현재의 靈光郡 法聖面 用德里 龍峴마을)의 대밭에 가서 대를 베어 죽창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각 마을의 민가에 있는 조총과 팽이·낫·가래 따위의 기물을 찾아 빼앗아 갔으며 그들의 소위 동학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과거에 감정이 좋지않던 사람을 일일이 잡아다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웃 마을 石橋村에 사는 安德必의 집을 습격하여 다른 사람이 맡겨놓은 백미 60여 석을 뺏고 그 집을 부셨으며, 같은 마을 宋京洙의 집 살림을 역시 때려부셨다. 이 때문에 인접한 各面이 시끄러워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소행이 참으로 해괴하나 양민과 어울려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속과 고을의 덕망가를 보내 이치를 따져가며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공문을 보내 해산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그 무리들 당장의 기세를 장차 수천명에 이르니 관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일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 하고, 또 그 도당이 보내온 서

면에도 역시 불일간 이 고을을 떠나겠다 하오나, 매우 수상한 무리들인지라 그 참뜻을 칙량할 길이 없는 고로 다시 이속으로 하여금 은밀히 염탐한즉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이니 어느 곳을 향할지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아낸 바가 이와 같으므로 우선 확인된 정보를 위와 같이 보고한다”고 하였다.

창졸기간에 번역하다 보니 완벽을 기하지 못하였다. 무장현감의 보고가 3월 22일에 전주감영에 도착한 점으로 미루어 전날인 3월 21일에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짙은데 이즈음에 현감 조명호는 동학당이 어느날 전주를 향한다는 사실을 능히 짐작하였을 터인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장에서의 마지막 정황을 서둘러 보고한 듯하다. 그는 이미 3월 11일자로 해주판관으로 전임방령이 난 뒤이며 후일 밝혀진 바로는 동학당이 무장에 모일 당시 비단으로 창의를 기를 만들어 주며 아침했다고 한다.(오하기문)

이어지는 기록은 무장을 출발한 동학농민군의 동정인데 시간관계로 이들이 고부땅에 당도하는 데까지만 소개하겠다.

■ 무장땅을 출발한 동학군 수천명은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총을 쏘아대면서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고창을 거쳐 3월 22일 정오경 興德지경에 들어섰고 이날은 興德 沙後浦(지금의 흥덕면 後浦里·沙浦里 일대)에 숙박하고 다음날 부안 줄포로 간다 함.(흥덕 公兄 보고) 茂長 堂山村 으로부터 고창을 거쳐 흥덕 경계까지의 거리는 약 50리가 되니 3월 22일 오전 5시경 진격을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 3월 22일 오전에 동학군이 고창을 통과할 때 高敞縣監이 멀리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사람을 시켜 내탐한 바 “이미 여러가지 폐정에 대한 교정절목이 있었으므로 일단 해산하였던 것이나 확실한 대답을 얻고자 하는 외에는 다른 뜻이 없고 장차 전주로 가서 감사와 안핵사(李容泰)에게 이 뜻을 전하고자 한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창현감은 곧바로 전주 감영으로 달려가 감사(김문현)에게 구두로 보고 한다. 아마도 23일에는 감사도 동학군의 심상치 않은 거동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로부터 전주성의 경계조치가 취해

진다.(營奇 : 전주에 주재하는 茂朱府의 營主人이 무주부사에게 보낸 기별지)

■ 3월 23일 오전 10시경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10여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철창과 죽창을 들고 扶安땅 菑浦에 당도하여 3,500상의 점심을 시켰고 뒤따라 3,000명이 혹은 말을 타고, 혹은 도보로 각자 총과 창을 들고 줄포 射亭(화 쏘는 곳)에 들이닥쳤는데 그들이 들은 깃발에는 仁·義·禮·智·信이라 쓰고 또는 順天·光州라고도 쓰였는데 이들의 행색이 수상하여 심히 놀라고 해괴하며, 이날 오후 6시 경에 줄포를 떠났는데 장차 古阜로 간다고 한다.(부안현감 보고)

■ 신임 고부군수가 부임신고를 위하여 전주 감영에 가서 부재중인 3월 23일 오후 8시경 동학도 3,000여명이 혹은 창검을 들고 혹은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며 고부읍내에 들어왔는데 말을 탄 사람이 20여명 가량되었다. 이들은 鄉校와 公廳(관청의 건물)에 집결하여 저녁밥을 읍내의 夷屬과 일반인의 집에 나누어 시켜 먹는데 그들의 행패가 극히 민망하다. (고부군 공형 보고)

「수록」의 인용은 이에 그치겠으나 이 밖에도 사태의 진전에 관하여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허다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한다.

이로써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무장임이 확인되고 거사일도 무장을 출발하여 장도에 오른 3월 22일 즉 양력으로 환산한 4월 27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무장포고문이 반포된 날짜도 이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黃珪이 「梧下記問」에서 “전봉준 등이 무장현에서 큰 모임을 갖고 민간에 포고하였다”는 기록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갑오동학혁명 1백주년을 앞에 둔 오늘도 우리 나라의 현실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일이 너무도 많아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짚어질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98년 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보국안민을 부르짖던 선인들의 비원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겨둔다면 우리의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하겠다.

한편 이날(3월 26일)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쓰이던 것으로 보이는 장검(長劍 : 길고 큰 칼)한자루가 공개되었다. 이 칼은 지난 1월 20일 이곳(孔音面 九岩里)에서 경지정리 공사중 이 동네에 사는 李廷捧씨(58세)가 지하 1m지

점에서 용기에는 엽전과 함께 발굴한 것으로 전체의 길이가 84cm이고 칼날의 길이는 53cm의 긴 칼로 본인(진기홍)의 생각으로는 갑오혁명 당시 지휘자급 인물이 쓰던 것으로 보이며 혁명이 좌절된 뒤, 후일을 기하여 이곳에 은닉하였다고 믿어진다. 그 당시 이곳에서는 高順宅·宋文洙등 유력한 동학접주가 살고 있었다. 이 장검은 앞으로 건립될 기념관 따위(현지, 고창군)에 기증할 예정으로 본인이 보관중이다.(진기홍 추기)

〈1992년 3월 26일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서 한림대학교 사학과 춘계학술답사단에게 강연 요지〉

感泉先生の 孝와 彰孝祠

愼 思 範

〈郷土文化研究會 副會長〉

〈彰孝祠 掌議〉

彰孝祠의 由來

彰孝祠는 感泉 吳先生을 모신 祠宅로 현 高敞郡 新林面 外化里 旌門嶺에 位置하고 있다.

英祖二十四年 戊辰에 많은 선비들이 先生의 孝를 崇慕하여 新林面 法止里에 祠宅를 建立하고 祠宅名을 論議하던 중에 갑자기 後園대앞에 내려가 彰孝二字를 새겨 이로 因하여 彰孝祠라 稱하였다.

純祖二十九年 己丑에 高閑隱 汝興과 柳一萍 心源과 虛齋 惠源兄弟를 配享하니 閑隱은 德學이 높은 鄉中の 師表요, 一萍 虛齋는 先生의 外後孫으로 孝學이 또한 높다. 高宗 五年 戊辰에 毀撤되었다가 그후 復設의 令에 依하여 三十一年 甲년에 先生의 墓 옆 旌門 孝感泉 위현 位置에 彰孝祠를 移建하고 閑隱은 純宗後 乙卯에 子孫이 居住하는 星內面 玉堤里에 玉堤祠를 建立하여 모시고 一萍 虛齋는 乙未년에 出生地요, 旌門이 있는 新林面 環山里에 龍岡祠를 지어 모셔 있다.

感泉先生の 世系

先生의 諱는 浚이요 同福吳氏니 高麗侍中 文獻公 大陞의 后로 贊成事 文靖公 璿은 六世祖요 大提學 龜城君 文齊公 潛은 五世祖요 贊成事 은 高祖

요 翰林學士 自貴는 曾祖니 高官大爵의 勳閥로 松都에 살다가 高麗가 亡함에 翰林公이 나라의 世臣으로 李氏의 벼슬을 버리고 이곳 興德賓月山下에 遁世隱居하니 吳氏의 入興德이 이때부터 시작되다. 先生은 世宗二十六年 甲子四月六日에 父親 同知中樞府事 彭年과 母親 全州崔氏 사이에서 新林面 外化里에서 出生하였다. 堦堦 仙仙 未顯

感泉先生의 孝

先生은 어려서부터 賴悟한 재주로 學業에 勤勉하고 篤實한 姿稟으로 禮節을 崇尚하였으며 特히 孝愛性이 있어 小學의 敎를 따라 父母를 至誠으로 섬겨 十歲前後에 孝童으로 이름이 높아 成宗二年 辛卯二月一日에 母親이 老病으로 重篤하자 至誠으로 救護하여 斷指垂血로 三四日을 연명하고 마침내 운명하니 禮節을 다하여 장사하였다. 바로 이어 父親이 등창으로 百藥이 無效라 입으로 患部의 濃血을 七晝夜를 빨아 完快했으나 끝내 合病으로 위독함에 변을 맛보아 症勢를 살피고 다리의 살을 藥으로 바치는등 정성을 다했으나 同年四月一日에 喪을 當하였다. 先生은 葬日로 부터 墓下에 廬幕을 짓고 朝夕으로 墓를 안고 피눈물로 슬퍼하여 하루 죽 한그릇에 소금과 채소를 입에 대지아니하니 온몸에 白毛가 솟아나다.(不進鹽菜白毛遍身)(行狀)

집에서 따라온 개와 밤마다 호위하는 범이 함께 있고(虎狗同進)(行狀) 유독 범은 매양 朔望마다 사슴을 잡아와 祭需로 바쳤다.

廬幕近處에 맑은 물이 없어 五里밖 靑山(秀山)중턱까지 새벽마다 물병을 매고 汲水하여 上食하니 手足이 붓고 터졌다. 하늘은 그 정성에 感動되어 靑天白日에 뇌성벽력으로 여묘막 앞에 맑은 샘이 솟아나 맛이 매우 청열(廬不湧泉水甚清冽)(實記)하니 이 소문을 들은 이고을 원님은 즉시 달려와 人夫를 動員하여 샘을 돌로 수축하고 孝感泉이라 새긴 記念碑를 세우니 五百餘年이 지난 지금까지 保存되고 있다.

그후 雲伊라는 女人이 이 샘에 不潔한 세탁을 하다가 벼락을 맞아 卽死하니 누구나 이 샘에 對한 敬虔한 마음을 다 하다.(雲伊汚泉雷震卽死人莫不敬虔)(實記)

특히 놀라운 일은 여막에서 자던 어느 새벽 꿈에 범이 백암(지금의 長城

郡 北一面)마을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살려 달라는 것이다. 先生은 喪服차림으로 어두운 새벽 험한 산길 파리재(現方丈山)를 넘어 三十里나 되는 白岩마을에 당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로 범을 잡으려고 에워쌌다. 先生은 큰 소리로 내 범을 쏘하지 말라하니 마을사람들은 해괴하게 여겨 말하기를 당신의 범이면 함정에 들어가라함에 先生은 곧 함정에 들어가니 범은 主人을 만난 개 처럼 반가워 하였다. 이 범을 타고 양고살재(長城四街里에서 高敞을 넘는재)를 넘어 고창 장을 지내왔다. 이런 史實들을 縣監이 監司와 御史에 전해져 나라에 올리니 成宗께서 嘉尙히 여기시고 通善郎에 軍資監直長の 벼슬을 除授하시고 免稅의 特典인 復戶를 내리시다.

先生은 五十一歲로 成宗二十五年 甲寅正月十六日에 卒하니 그해 七月에 旌閭가 내리고 禮曹에서는 世世不替의 제사를 모시라 命하였다.

中宗年間에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에 孝子로 朝鮮朝의 人物二人中에 一人으로 登載되니 先生은 全國의 大孝가 아닐 수 없다.

英祖年間에 先生의 孝가 전국에 알려져 士林들은 彰孝祠에 모셔 尊慕하고 搢紳中에 大提學 南有容은 墓碣銘을 짓고 領議政 李天輔와 領議政 金在魯와 左議政 宋寅明과 左議政 鄭羽良과 左議政 趙顯命 判書 趙明鼎과 參判 吳光運등이 孝感泉記와 銘과 歌를 짓고 저 유명한 黃頤齊 奇蘆沙先生들은 前後 實記序文을 지어 先生의 孝를 찬미하고 光復후 庚申에는 孝感泉이 文化財(地方 記念物 第四三號)로 指定되고 同年三月에 國內三百餘 儒林들이 뜻을 모아 七尺大碑를 廟庭에 세워 先生의 孝를 追慕하였다.

向後推進計劃

以上과 같은 先生의 孝를 勸案할 때 孝感泉은 반드시 國家文化財로 昇格해야 하고, 주위부지 最小限 萬餘坪은 確保해야하고 旺林에서 彰孝祠까지 進入路를 포장해야 하고, 祠宅와 講堂과 不桃廟를 改築해야하고 담장을 新築하는등 주위환경을 助成하여 聖域化를 해서 全國民에 孝思想을 鼓吹하는 산 教育場으로 만들기 爲하여 以上과 같이 推進中이오니 積極協助 있으시기를 간망하나이다.

韜庵 吳希吉 小考

柳 孔 善

郷土文化研究會 第3分科委員長
國史編纂委員會 史料調査委員

目 次

1. 序 言
2. 出生과 學問
3. 鄭汝立 逆謀連累解明과 官職
4. 謫所에서의 著述과 死後

1. 序 言

이 고장 出身의 大儒學者로서 壬亂中에 太祖影幀과 國史實錄 等を 無事히 移安한 功을 세웠고, 泰仁縣監 在職時 誣告로 巨濟까지 流配되어 老年의 流配 生活中에도 讀書과 學問에 沒入하여 道東淵源錄 等 많은 著述을 남긴 韜庵 吳希吉(1556~1625)의 行狀과 年譜 等の 文献資料와 現地踏査, 探聞 等を 通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出生과 學問

先生の 諱는 希吉이요, 字는 吉之, 自號曰 韜庵이다. 그 先祖는 羅州人인데 高祖의 諱 自治는 敵愾功臣 兵曹參判으로 羅城君을 封하고 卒後에 吏曹判書를 贈하고 襄平의 諡를 받으시다. 曾祖의 諱 世勳은 富平府事로 左贊成을 贈하여 羅原君을 封하였고, 祖의 諱 諤은 漢城府 庶尹으로 戶曹參議를 贈하였으니 貳

相(判書) 諱 謙의 弟이다. 考의 諱 彦麒는 承政院 左承旨를 贈하였고, 妣 朴氏는 縣監 億齡의 女라. 그 아버지 承旨公이 羅州로부터 高敞으로 移住하였다. 韜庵은 明宗 11年 丙辰(西紀 1556年)에 出生하였다.

幼年부터 容貌가 偉大하고 天性이 簡潔하며 遊戲가 異凡하였다. 10歲에 書堂 스승에 나아갔는데 聰明이 過하고 才藝가 出衆하였다.

• 16歲 宣祖 5年 辛未(西紀 1571)

德陽奇氏 中樞公 諱 孝寬의 女와 結婚하였다.

• 18歲 宣祖 7年 癸酉(西紀 1573)

父 承旨公의 訓書를 服從하여 終身토록 銘心하여 잊지 않았다.

• 19歲 宣祖 8年 甲戌(西紀 1574)

父 承旨公이 感氣疾患 系統으로 1年동안이나 辛苦할때 晝夜 侍湯을 始終 게 울리하지 않고 마침내 大故를 當하여는 슬픔에 울고 땀이 節次에 넘고 卒倒했다가 回生하였다.

• 20歲 宣祖 9年 己亥(西紀 1575)

承旨公을 住居마을 左麓에 葬事지내고(註①) 墓下에서 侍廬하며 3年을 한결 같이 禮節에 따랐다. 服이 끝남에 貳相公 諱 謙을 찾아가서 人事드리고 學問을 得聞하고 많이 感動하는 바가 있었다.

• 22歲 宣祖 10年 丁丑(西紀 1577)

錦江 奇公 孝諫(妻從祖叔父)門下에서 小學을 읽으니 奇公은 卽 河西 金先生의 高弟子인 故로 그곳으로 갔으며 壺巖 卞公 成溫과 霞谷 鄭公 雲龍으로 道義之交가 되었다.

• 23歲 宣祖 11年 戊寅(西紀 1578)

山刹이나 書院을 찾아다니며 篤實하게 讀書하니 그 學術의 바름과 所見의 높음이 古人에 뒤질바 없고, 또 栗谷 牛溪兩先生의 風을 많이 들어서 欽仰해서 恭敬하였다. 根本뜻이 科擧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母親의 勸勉으로 試場에 나가기도 했다.

• 24歲 宣祖 12年 己卯(西紀 1579)

鄉里의 많은 선비들이 舊鄉校터가 卑濕不吉하여 高敞邑 山所골 高興柳氏祭室附近) 新基를 擇할때에 韜庵께 請하기를 “公의 宅基가 사람마다 모두 吉하다고하니 重價로써 바꾸는 것이 어떻소?” 하거늘 韜庵이 “至今에 와서 內冠을

쓰고 내 衣服을 입고 禽獸를 免하게 된것은 모두가 孔夫子의 功이니 내 어찌
아껴가지고 重價를 바라겠는가?”하고 바로 母親께 아뢰옵고 鄉校를 짓기를 許
及함에 鄉儒가 稱誦하여 傳하기를 安晦軒과 比較를 하였다. 그런 故로 그 後
淳昌郡 古禮村으로 移居하게 되었다.(그곳에 살고있는 楊時愴과 男妹間の 緣故
가 있었다.

• 27歲 宣祖 15年 壬午(西紀 1582)

鄭汝立을 가서 보고 數次 訪問하고 書札 往來도 많았는데 汝立이 學識은 있
고 才操는 있으나 行動이 怪異함이 많아 長書로서 絶交를 告했다.

• 30歲 宣祖 18年 乙酉(西紀 1585)

長子 以粹 出生하고

• 33歲 宣祖 21年 戊子(西紀 1588)

次子 以精이 出生하다.

3. 鄭汝立 逆謀連累 解明과 官職

• 34歲 宣祖 22年 己丑(西紀 1589)

汝立 逆謀事實이 發覺됨에 先生이 逆賊과 서로 알고 있는 處地로 完營(全羅
監營)에 간히다.

• 35歲 宣祖 23年 庚寅(西紀 1590)

正月에 道伯 洪汝諄이 狀啓를 올려 吳希吉·鄭雲龍은 처음에는 사귀다가 後
에 絶交의 글이 있어 特히 釋放되다. 同年 5月 28日에 王이 親히 先生의 告絶
長書를 逆家の 文書中에서 보시고 이내 政院에 監司를 시켜 말(馬)을 보내 올
려 보내라는 뜻으로 命하시니 公이 말을 타고 闕下에 이르렀는데, 王이 곧 備
忘記를 내리시며 “내가 너의 汝立에게 보낸 글을 보니 嘉賞하고 驚歎할 일이
라. 너의 學術의 바름과 所見의 높음으로 무슨 緣由로 鄭賊의 門에 出入하였으
며, 네 平日에 누구를 스승으로 무슨 책을 읽었으며 科舉試場에는 몇번이나 參
席했으며, 父母兄弟는 모두 계시느냐? 詳細히 對答하여라.” 하시니 公이 아뢰
되 “臣이 備忘記를 받들어 엎드려 읽으니 感恩의 눈물이 스스로 흘러내리고,
惶恐하여 몸들바를 모르겠나이다. 臣이 젊어서 부터 일찍 學問에 뜻을 두었으
나 明師와 良友가 없어 孤陋之歎을 免치 못하더니, 逆賊 汝立이 當初 世上을

속이고 名義를 盜賊질하고 또 學問과 見聞이 넓기로 臣이 일찍 한번 가서 보고, 그 뒤에 때로 訪問도 하고 書札 往復도 있었으나, 그 所行이 거짓이 많기로 이내 丁巳年 봄에 글을 지어 이를 排斥하고 마침내 서로 보지도 않던 차에, 어찌 이번에 이 非常之舉가 임금님 아래에 이르니, 그 前의 非를 씻어 주시고 特히 慈愛롭게 反覆하여 父母兄弟의 일까지 下問하여 주시니 臣은 實로 感激하여 눈물이 흐를 뿐이옵니다. 臣은 交遊를 좋아하지 않고 病든 母親이 집에 계셔서 멀리 나가지도 않고, 山房이나 窮村에 오직 홀로 있기를 좋아하며 일찍 故儒臣 校理 金麟厚 學派의 淵源이 있어 思慕하옵고, 다음으로는 그의 門人 奇孝諫을 좇아 小學을 읽었고 또 師友 卞成溫·鄭雲龍에게 從遊하여 古人의 書를 講論하였을 따름이고, 別로 스승으로 섬기는 분이 없으며 다만 宋儒諸書와 經史에 出入하였을 뿐이고, 主로 읽은 一書도 없으며, 臣은 才藝가 없고, 또 科擧 보는 글을 좋아 하지 않고, 오직 古人의 爲親觀光의 義를 들었기로 或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며, 科擧의 試場에는 아직 參席치 않았습시다. 臣의 父 彦麒는 臣이 19歲 때에 世上을 뜨시고, 오직 母親만 계시고 다른 兄弟도 없으며,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하니 말씀하시기를 “알겠다”고 하시고 王께서 또 備忘記와 長書를 政院에 내리면서 “먼저번에 逆家의 文書를 보니 그 中에 吳希吉이 魁首에게 反釋하는 千餘言의 글에 그 言論이 平正的確하다. 朝廷에도 이와 같은 議論이 比較할 만한 것이 없는데 希吉이는 그 汝立의 거짓말과 숨김을 排斥함에 있어서 그 形容이 極에 達했으니, 그 學術의 바름과 所見의 높음은 俗儒의 미칠바가 못된다. 王인 내가 보니 嘉歎하여 南方에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저번에 全羅道에서 잡아다 거두었기로 上達하였으되 이에 釋放을 시켜 바로 서울로 올라 오도록 하였으니 汝立의 門의 出入했으면서도 其論이 이와 같으니 더욱 可賞하도다. 이는 반드시 奇士이니 내가 官職을 주고자 하노라”하시고, 司郎廳에 命하여 大臣의 意見을 말하라 하시니 領議政 李山海는 아뢰옵기를 “吳希吉이는 逆賊과 서로 알고 그 門에 出入하였으나 特히 聖恩을 베푸시와 前非를 씻고 官職을 주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굵어 살피시옵소서”하고 左議政 鄭澈(松江)이 아뢰기를 “吳希吉은 이미 逆賊과 相交했으나 또 相絶했으니 이는 그 좋은 바를 알고 또 나쁜바도 알았음이라 善處를 바라옵니다.” 領府事인 沈守慶이 아뢰기를 “임금님의 敎示가 마땅하오니 允許를 바랍니다”하니 또 備忘記를 政院에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高敞에 사는 忠義衛 吳希

吉이 이번 丁亥年間에 奸黨이 邪設 李珥(栗谷) 成渾(牛溪)이 모함 當하고 물리침을 當할 때에 李珥와 成渾을 推尊함에 其論이 平正的確한지라 眞實로 嘉賞하니 相當職을 除授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6월에 厚陵參奉을 除授하니 先生이 關門에 나아가서 恩惠에 感謝하고 이내 辭職을 上疏하니 王이 許諾치 않고 가로되 “너의 辭疏를 살펴보니 逆賊의 欺世와 盜名에 누가 속지 않겠는가? 너의 其門에 出入이 괴이한 일이라. 오직 其門에 出入하면서 附和하지 않고, 홀로 是非의 바를 지키고, 바로 怪異하고 숨김을 물리치니 이는 내가 特別히 너의 자취를 容恕하고 깊이 너의 마음을 取한다”하시니 先生이 感激을 이기지 못하고 卽時 赴任하였다.

7월에 母親의 病患으로 辭意를 올리고 母親이 계시는 故鄉으로 돌아오다.

8월에 時食으로 家廟에 祭文을 지어 國家의 恩惠를 입었음을 告하였다.

9월에 母親의 病患이 平常으로 回復되시니, 先生께서는 責任을 잊지 못하여 바빠 赴任해 가실때, 途中에 牛溪先生의 居所가 있는 故로 進拜했는데, 先生께서는 特別히 寵遇하여 讚揚하며 篤學之志와 趁操之正에 關하여 問答하였다.

• 36歲 宣祖 24年 辛卯(西紀 1591)

4월에 慶基殿 參奉으로 轉勤되셔서 5월에 赴任하였다.

• 37歲 宣祖 25年 壬辰(西紀 1592)

6월에 倭寇가 突然 侵略해와서 危急한 狀況에서 太祖影幀과 實錄 및 祭器, 諸國史를 井邑 內藏山 隱寂庵으로 移安하여 잘 保全하였다.

12월에 先生이 西海로 돌아서 임금님이 避難 가신곳에 가서 影幀實錄 移安때 朝命을 듣지 않았음을 上奏타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母親의 병환으로 인해 急히 歸省하였다.

• 38歲 宣祖 26年 癸巳(西紀 1593)

正月에 朝命으로 太祖影幀 및 實錄諸史를 牙山縣으로 移奉하다.

6월에 厚陵參奉을 再授하니 前年の 變에 處한 事由始末을 開陳하는 上疏를 올린다.

7월에 錦江 奇孝諫의 訃音이 오니 祭文을 지어가지고 祭祀에 다녀오다.

◦ 41歲 宣祖 29年 丙申(西紀 1596)

太祖影幀 및 實錄諸史를 朝命으로 江華城으로 移安하다.

• 42歲 宣祖 30年 丁酉(西紀 1597)

太祖影幀을 모시고 임금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다.

• 49歲 宣祖 37年 甲辰(西紀 1604)

11월에 極言으로 上疏하고 또 李元翼, 尹根壽, 李恒福을 任用할 것을 請하니 王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임금을 모시는 扈聖原從功二等勳과 沙斤道 察訪을 特別히 除授하시다.

12月 26일에 母夫人이 돌아가심에 그 슬픔이 父親 喪때와 如一하니 親戚들이 憫惻히 여겨서 이제는 年老하니 多少 늦출것을 勸했으나 마침내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決行하였다.

• 50歲 宣祖 38年 乙巳(西紀 1605)

2월에 高敞에 살던 집가까이 父 承旨公 墓아래로 葬事지내니 그 距離가 100餘리가 되나 先親의 墓下에 葬함은 遺命을 들어서이고, 또 墓下에 廬幕을 짓고 一心으로 服制를 다 하였다.

公이 일찍 先親의 諱日에 祭祀를 마치고 撤床을 하지 않은채 잠깐 屏風 아래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父母의 말씀이 “너의 孝는 感動할만하나 飯中에 不潔한것이 있다 하심에 크게 놀라 細密히 檢査해 보니 果然 一寸(約 3cm) 남짓한 머리카락이 하나 있는지라. 바로 祠堂에 나아가서 스스로 罪를 求하더니 다음해 이날에 極히 精潔스럽게 차리니 또 꿈에 父母님 말씀이 至誠이 있음에 잘 먹었다 하시니 그 追遠의 篤實함을 계실때와 같이 모시는 至誠이 이와 같았다.

光海初年에 求言으로 因하여 萬言疏를 올리다.

• 57歲 光海 4年 壬子(西紀 1612)

6月 宣祖實錄 修正을 듣고 先王의 備忘記와 教旨四度を 奉進하고 또 亂時에 御容과 實錄을 保全한 緣由를 上疏하고 陳達했는데 光海君께서 特히 答狀을 賜하고 그 至誠을 쓸만하다 하시고 곧 纂修廳으로 내려서 寶鑑속에 採入토록 하고 特히 六品職을 내리시고 그 功勞를 賞주시다.

• 58歲 光海 5年 癸丑(西紀 1613)

9월에 東部主簿를 除授하다.

12월에 司憲府 監察을 除授하다.

• 59歲 光海 6年 甲寅(西紀 1614)

11월에 太祖影幀을 받들고 慶基殿에 奉安할때 特히 告祭首獻官하고 또 畫像

을 賜하여 그 功을 表彰하다.

同年에 韓春이 禮曹에 請하여 公의 壬辰功을 記錄할 것을 請하니 該曹는 先生과 韓春을 아울러 褒錄하니 光海께서는 眞實로 그렇다고 許諾하시다.

• 60歲 光海 7年 己卯(西紀 1615)

正月에 泰仁縣監을 除授하시다.

6月에 次子 以精이 誣告로 典獄에 갇힌바 되어 公이 辯論하기 爲하여 서울로 가다.

4. 謫所에서의 著述과 死後

• 64歲 光海 11年 己未(西紀 1618)

8月에 賊黨의 誣告를 입어 巨濟島로 귀양 가다.

• 65歲 光海 12年 庚申(西紀 1620)

公이 老年에 罪없이 멀리 귀양가니 사람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늘, 혼자 마음이 아주 편안한 모양으로 寒窓에 讀書을 晝夜로 게을리 하지않고 道東淵源錄 三卷을 編修하니 箕子로 부터 圃隱(鄭夢周), 冶隱(吉再)에 이르기 까지와 朝鮮의 儒賢과 其他 新羅·高麗以後 名臣의 言行을 빠짐없이 採集하였고 또 斥亂逆文도 著述하였다.

• 66歲 光海 13年 辛酉(西紀 1621)

公이 春秋의 義와 義理의 說에 일찍 밝은바, 이때를 當하여는 是非를 잇고, 大義篇, 天命圖說과 岸山誌, 白雲誌 등을 書述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다.

• 67歲 光海 14年 壬戌(西紀 1622)

겨울에 從弟 希有喪을 듣고 慟哭하며 사람을 보내고 글을 지어 弔問하다.

• 68歲 仁祖元年 癸亥(西紀 1625)

겨울에 從弟 翰林의 訃告가 오거늘 慟哭하고 아들을 보내어 글을 지어 祭祀를 지내게 한다.

• 70歲 仁祖 3年 乙丑(西紀 1625)

先生이 絶海孤島에 여러해를 계심에 熱帶개펄에서 일어나는 毒氣로 因한 熱病이 깊어지고, 痢疾까지 兼하게 되어 謫舍에서 卒함에 仁祖 3年 己丑 7月 29日이다. 謫所에서 고운 솜으로 막고, 8月에 古禮村南麓 午向之原으로 反葬하

니 遠近의 士大夫들이 慟惜의 마음을 禁치 못해 가로대 公이 먼 毒氣가 많은 땅에 귀양가셔서 天命대로 마치지 못하니 어찌 德을 稱하지 않을 것이며 時運의 잘못이라 하더라. 後에 湖南선비들이 月溪祠(註②)를 高敞에 세우고 卞壺巖, 卞仁川, 鄭霞谷 諸先生과 같이 配享하다가 戊辰年 大院君의 大同殿撤後로 公의 11代孫 九根이 儒論으로 雅山面 盤岩里에 祠宇를 짓고 琴巖祠(註③)라고 하여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註① 墓所在—高敞邑 校村里(향교)뒷山 左麓

1990年 春에 立碑(6尺). 參席後孫 吳德烈(當時 文教部 企劃室長으로 現在 中央教育評價院長) 등과 多數 來賓과 儒林(筆者도 參席하였음)

註② 月溪祠 遺墟碑

所在—高敞邑 月谷里(上月部落), 五尺碑에 冠石을 얹고 周圍에 鐵柵架設, 立碑—檀紀 4304年 辛亥 4月 日

河東 鄭泓采 撰 豐山 洪錫憲篆, 咸陽 朴永鳳書

有司 鄭淳明(鄭泓采氏 姪)

有司 卞東洙(新月里)

註③ 琴巖祠

所在—高敞郡 雅山面 盤岩里

現在의 管理人 吳鉦烈 12代孫(11代 吳九根氏의 長男으로서 祠堂 옆에 居住하고 있음)

鄉土文化研究會 沿革

1976. 12. 20 鄉土文化保存會 發足(8人)
1978. 7. 16 (第1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仁村生家에 關한 調查報告(金光彥—全北大 教授)
 - 牟陽城에 關한 資料調查 報告(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1. 5. 2 (第2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高敞地方의 地名調查報告(柳在泳—圓光大教授)
 - 高敞地方의 巫俗研究發表(朴順浩—圓光大教授)
 - 高敞邑城의 實測調查報告(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3. 4. 30 (第3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詩歌로 본 高敞(柳在泳—圓光大教授)
 - 義鄉으로 본 高敞(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4. 5. 4 (第4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高敞邑城의 築城年代에 關한 調查研究(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5. 11. 3 (第5回) 鄉土文化論壇
- 國家發展과 鄉土文化(徐廷柱—詩人)
 - 高敞地方의 地名 小考(柳在泳—圓光大教授)
 - 鄉土文化 定立을 위한 提言(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5. 11. 22 (第6回) 鄉土文化 大講座
- 韓國文學史에 있어서 湖南文學의 位相(林基中—京畿大教授)
 - 高敞의 뿌리(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6. 12. 22 高敞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會로 改編(研究委員 40人). 會則制定
1987. 9. 18 (第7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興德南塘會盟壇의 事蹟과 意義(愼思範—幕忠祠建立推進委員長)
 - 忠魂의 會盟壇(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 高敞邑城의 戰蹟 調查 報告(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88.10.17 (第8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禪雲寺白坡碑로 본 白坡 秋史(朴東洙－研究委員)
- 御賜閣과 二十五忠·五烈婦에 관한 調查研究(金正雄－研究委員)
- 高敞邑城의 踏城民俗 調查研究(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1990.12.22 (第9, 10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人間 申在孝의 再照明(姜漢永－전 판소리 學會長)
- 申在孝의 판소리 辭說(徐鏡文－慶北大教授)
- 申在孝의 生涯와 逸話(李起華－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 忠賢祠의 懿蹟(李敦禹－전 茂長鄉校 典校)

1991.12.29(第11回) 鄉土文化研究發表會

- 白坡의 孝와 家門
朴東洙: 高敞鄉土文化研究委員
- 戶部尙書 忠肅公 張廷祐에 관한 小考
南大熙: 興德鄉校儒道會長
- 竹山祠 三先生에 관한 小考
李敦禹: 高敞郡議會議員
- 高敞·茂長·興德의 古邑誌 解題
李起華: 全北文化財委員會專門委員

鄉土文化研究會 機構

顧問：徐廷柱(詩人、藝術院會員)

柳在泳(圓光大教授)

張鉉燉(高敞郡守)

指導委員：李起華

會長：鄭益煥

副會長：愼思範

林柱成

第一分科(文化財)委員長：金在重

第二分科(鄉土史科)委員長：南大熙

第三分科(文化藝術)委員長：柳孔善

監事：宋在德

監事：高大植

幹事：李孟起

幹事：金正雄

高敞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會 研究委員 名單

柳孔善	高敞邑 校村里 295	64-2949	劉世永	雅山	中月	62-5053
林鍾秀	" 上坪 550	64-3674	鄭益煥	茂長	德林 288	62-9368
宋在德	" 東山 74-4	64-2247	金東鎮	"	松溪 258	62-9496
林柱成	" 月岩 192	64-3154	李敦禹	"	江南 198	62-9332
李起華	" 邑內 236-5	64-2340	金湘鎮	孔音	壯谷 365	62-7003
文東皓	" 邑內 615	64-2727	文昌煥	"	禮田 168	62-7025
徐致倫	" 栗溪 242	64-4119	金炳洵	"	九岩山 122	62-7407
宋榮來	" 校村 244	63-3308	成夏軾	海里	松山 198	63-6366
金正雄	" 邑內 192-67	64-4248	宋炳甲	"	芝老 667	63-6548
柳濟豐	" 月谷 296	64-3704	金在重	上下	壯山 167	63-0135
金相弼	" 邑內 590-1	64-1678	房金燦	"	紫龍 40	63-0211
曹南鎬	" 德井 26	63-2892	韓正奇	心元	斗於 13	63-5273
金永基	" 內洞 117	64-3621	金壽炳	"	箕山 305-3	63-5414
安道淵	古水面 連東 260	62-0073	高大植	新林	加平 166	62-4258
金玉植	" 隱士 820	62-0405	李孟起	"	道林 135	62-4110
金永滿	" 長斗 317	62-0098	吳炳溢	"	德化 287	62-4548
李正範	" 平支 368	62-0003	尹平燮	興德	沙浦 99	62-6370
權寧奉	星松面 鶴天	63-1110	高光容	"	堤下 396	62-6427
姜聲俊	" 茂松 417	63-1224	李守京		漢井 351	62-3150
庾炳泰	" 洛陽 103	63-1235	南大熙	星內	月山 134-3	62-3128
辛達夏	大山面 蓮洞 51	62-0741	李載甲	"	陽桂 321	62-3101
金永聲	" 梅山	62-8426	愼思範		雲陽 1-88	62-2427
柳顯泰	雅山面 木洞 158	62-5120	李奇範	富安	斂山 303	62-2215
朴東洙	" 南山 459	62-5146				

高敞文化院 附設「鄉土文化研究會」會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會는 高敞文化院 附設「鄉土文化研究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鄉土史料의 發掘, 調查, 蒐集保全, 傳承 發揚을 通해 地域社會開發과 鄉土文化 暢達에 寄與한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 本會는 前項의 目的達成을 위해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1. 鄉土文化財의 保存 및 開發事業
2. 鄉土 固有 民俗의 發掘調查 研究事業
3. 鄉土史料의 蒐集 調查 整理 事業
4. 鄉土文化의 整理 및 啓發 事業
5. 其他 必要한 國譯, 發刊 및 發表事業

第四條 本會의 委員은 高敞郡內 居住者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同好人으로서 이 를 構成한다.

第五條 本會 事務所는 高敞文化院 에 둔다.

第二章 機構

第六條 本會는 다음 機構를 둔다.

第一分科委員會 (文化財)

第二分科委員會 (鄉土史料)

第三分科委員會 (文化藝術)

第七條 本會의 機構는 다음의 任務를 遂行한다.

第一分科—鄉土의 指定文化財와 有形 및 無形文化財의 調查研究 保存事業

第二分科—鄉土의 傳統 史料에 關한 資料 蒐集 및 調查研究 整理事業

第三分科—鄉土의 古典文化에 關한 調查研究 및 文學藝術의 研究發表事業

第三章 任員

第八條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1人

副會長 2人

第一分科委員長 1人

第二分科委員長 1人

第三分科委員長 1人

幹事 1人

監事 2人

第九條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事務를 統理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이를 代理한다.

各 分科委員長은 所屬分科委員을 代表한다.

幹事는 一切의 事務를 管掌한다.

第十條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第十一條 本會에 顧問 및 指導委員 若干人을 둘 수 있다.

第四章 會議

第十二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但, 定期總會는 年一回(3月 日), 臨時總會는 必要할 때 會長이 隨時 이를 召集한다.

第十三條 本會의 會議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十四條 定期總會에서는 다음사항을 議決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正
2. 任員의 選定
3. 事業 計劃·議決
4.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五章 財政

第十五條 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支授金 그리고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六章 運營規則

第十七條 本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規定으로 決定한다.

第十八條 本會의 加入은 委員 3人 以上の 推薦 및 全 委員의 贊意에 依한다.

附則

本 會則은 議決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6. 12. 22.